

거제근대 잔존유적지 현황조사 및 콘텐츠 방안 보고서

2020. 12.

거제시의회 거제역사관광연구회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거제근대 잔존유적지 현황조사 및 콘텐츠 방안 보고서

본 보고서를 「거제근대 잔존유적지 현황조사 및 콘텐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함.

2020. 12.

연구수행자

구분	소속기관	직위	성명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연구원	전갑생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연구원	고영화



차례

제 1장 서론 /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의 배경	8
2.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 수행 과정	8
1. 연구의 방법	9
2. 연구의 수행과정	9
3. 선행 연구의 검토	10
4. 연구 기간 및 연구진	11

제2장 거제시의 도시 공간 및 지리·인문학적 환경 /13

제1절 개관	13
제2절 도시 공간 및 지리학적 환경	13
1. 거제·동부·둔덕·사등 권역	13
2. 장목·하청·연초 권역	14
3. 일운·이운면(장승포) 권역	14
제3절 인문학적 환경	14
1. 인문학적 배경	14
2. 인문학적 환경	15
제4절 재조일본인 거주와 군사 환경 변화	16
1. 개항 이후 재조일본인의 계절어업과 정주어업	16
2. 러일전쟁 전후 거제의 군사 환경	22
3.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거제의 군사 변화	26

제3장 거제시 근대건조물 분야별 개관 / 26

제1절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및 건조물 규정	26
1. 근대문화유산 개념	26
2. 근대문화유산 유형분류	26
제2절 거제시 근대건조물 분야별 개관	28
1. 건축물(가)	28
2. 산업구조물(나)	30
3. 생활문화유산(다)	30
4. 역사유산(라)	30
5. 인물유산(마)	31

제4장 근대건조물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 32

제1절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32
제2절 건축물(가)	34
1. 종교시설(01)	34
1) 장승포신사	34
2) 칠천도 금곡 동본원사 분원	39
2. 관청업무시설(02)	42
1) 진해요새사령부 지심도 지구 포대 헌병분주소	42
2) 장승포 헌병파견대	45
3. 집회시설(03)	48
1) 장승포 공회당	48
4. 주거시설(04)	52
1) 지심도 전등소 소장 사택	52
5. 상업시설(05)	55
1) 칠천도 일본인 상점	55
2) 장승포 구로키 요리점	58
제3절 산업구조물(나)	60
1. 방파제	60
1) 장승포 방파제	56
제4절 생활문화유산(다)	63
1. 납골당	63
1) 장승포 납골당	63
제5절 역사유적유산(라)	66
1. 군사(01)	66
1) 구영 신호소	66
2) 지심도 서치라이트 보관소	69
3) 장목면 저도 포대 1	73
4) 장목면 저도 포대 2	79
5) 장목면 저도 탄약고 1	85
6) 장목면 저도 탄약고 2	91
7) 장목면 저도 중대본부	98
8) 장목면 저도 통신대	106
9) 지심도 포대 1	112
9) 지심도 포대 2	115
10) 지심도 탄약고	118
11) 지심도 중포대 벙커 1	121

12) 지심도 중포대 벙커 2	124
2. 기념비 및 조형물(02)	127
1) 지심도 진해요항사령부 군용지 표지석	123
2) 장목면 저도 진해요항사령부 군용지 표지석	129
3) 진해요항사령부 송진포 가근지방비대적	131
4) 지심도 방향 지시석	133
5) 송진포 가근거지 기념탑	135
6) 송진포 방비대 무기관	141
7) 취도 기념비	145
제6절 인물유적(마)	150
1. 기념비(01)	150
1) 장승포 오타 가족(太田家) 조형물	150
2) 장승포 납골당 오타 가족 조형물	153
2. 송덕비(02)	156
1) 구조라 일본인 송덕비	156
2) 옥포리 일본인 송덕비	159
 제5장 거제근대 건조물 국가지정문화유산등록 추진 타당성 /	 162
제1절 개관	162
1. 선정기준	162
제2절 전문가 의견 검토	162
1. 문화재 분야	162
2. 역사분야	163
제3절 타당성 결과	164
1. 결론	164
2. 제언	165
 제6장 거제근대 건조물 디지털 아카이브 및 콘텐츠 예시 /	 166
제1절 근대건조물 현황 및 목록화 방안 제시	166
1. 근대건조물 현황	166
2. 목록화 방안 제시	166
제2절 근대건조물 및 소책자 제작 예시	166
1. 거제섬(巨濟島)의 역사와 거제민의 삶	166

제 1 장

서론

-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 제 3 절 선행연구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거제시 근대 건조물에 대한 보존 대책 필요성 대두

- 거제시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화 과정에서 훼손 및 멸실되고 있는 근대건조물 및 군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필요성
- 문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보존 가치 및 활용 등이 요구됨

□ 근대건조물의 문화재 가치 평가 및 디지털아카이브 및 콘텐츠 활용방안 요구

- 조사 이후 개별 근대건조물의 평가에 따라 국가, 도, 시 지정 필요
- 개별 근대건조물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현 방안
- 구축된 콘텐츠 예시 제시의 요구

2. 연구의 목적

□ 거제시 근대 건조물 및 군사시설의 문헌 및 현황 조사

- 거제시 관내 러일전쟁 전후와 아시아-태양전쟁기 군사유산, 일본인 적산가옥 등의 건축물, 각종 기반(도로·방파제 등) 및 사회(신사·납골당 등)시설의 산업유산, 인물유사(송덕비) 등 식민지 관련 잔존 유산 현황 및 문헌 조사 등을 병행해 기초 현황자료 확보
- 조사 및 정리된 식민지 유산 중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가능성 높은 문화재 선별 및 근대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자료 조사
- 잔존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역사 관광 콘텐츠 생산을 위해 조사
- 수집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제시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연구 수행 과정

1. 연구의 방법

□ 거제시 근대도시 형성과 변화 과정

- 개항 이후 거제의 근대도시로의 형성과정에서 재조일본인 어업이주 현황과 분포를 국내 및 국외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파악
- 거제에서 일본군사 상황과 각종 시설들을 설치하는 현황과 분포 등을 기존 문헌 외에도 다양한 문헌들을 통해 파악
- 시기별 도시 변화에서 건조물들이 신축되는 것을 파악

□ 거제시 근대유산 관련 현장 조사 실시

- 역사적 배경에서 거제근대 문화에 해당되는 현장조사 실시
-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조사 현황 조사표와 상세한 내용 작성
- 조사결과의 목록화 작업 병행

□ 거제시 근대유산 전문가 자문결과에 따른 등록문화재 여부 제시

- 기존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국가등록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 기준 분석
- 문화재청이나 근대건축가, 역사학 등의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해 결과 도출
- 그 결과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 제시

□ 거제시 근대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제시

- 다른 지역과 비교해 근대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 모델 분석
- 거제근대 문화유산의 모델 제시

□ 거제시 근대유산 관련 소책자 및 스토리텔링 등 콘텐츠 제시

- 문헌 및 현장 조사에 따른 결과를 소책자로 제시
- 개별 문화유산을 가지고 한 개 이상의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콘텐츠 제시

2. 연구의 수행과정

□ 본 연구는 다음 표와 같은 수행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 1 연구 수행 과정

구분	일시	주요 내용	비고
사전회의	2020. 11. 19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 준비회의	착수보고
자료조사	2020. 11. 23	국립중앙도서관	일제강점기 자료 조사

자료조사	2020. 11. 24	국사편찬위원회	"
자료조사	2020. 11. 30	국가기록원	"
현지조사	2020. 12. 8	장목면 구영, 송진포	현장조사 연기
자료조사	2020. 12. 9	하청면 칠천도	" 연기
현지조사	2020. 12. 15	장승포, 일운면 지심도	" 연기
자료조사	2020. 12. 16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일제강점기 자료조사
자료조사	2020. 12. 17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
자료조사	2020. 12. 18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및 국회도서관	"
회의	2020. 12. 18	보고서 작성회의	
보고회	2020. 12. 22	최종보고회	

3. 선행 연구의 검토

□ 본 연구 과제 관련 타 기관의 현장조사 보고서 발간

- 경상남도는 2003년 개항기부터 1980년 이전까지 거제시를 비롯한 각 시·군의 근대 문화유산을 지정별, 유형별, 연대별 조사와 시설별 건축물·산업구조물·생활문화유산·역사유적·유적별로 조사해 『근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보고서』(2004)발간. 거제시는 거제도포로수용소를 비롯한 13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진석중 가옥(2013년)과 거제초등학교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 문화재청은 2013년 전국에서 태평양 전쟁 유적 중 부산·경남·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건조물들을 조사 실시. 그 조사결과에 따라 『태평양 전쟁 유적(부산·경남·전남 지역) 일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발간. 거제시에 해당된 유적은 유일하게 지심도만 선정해 총 20개 건조물 및 가옥 조사 내용 게재

□ 본 연구 과제 관련 문헌조사 자료 발간

- 2015년부터 2년 동안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에서 『거제근현대문헌총서』(1~7권)를 발간. 그 중 『거제근현대문헌총서』 2권(2015)에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방광석·이병례·전갑생·김미현 번역 및 해제), 『거제근현대문헌총서』 3·4(2015)에 일제강점기 1(전갑생·전명혁 번역 및 해제)·2(전갑생 번역

및 해제) 각각 3권이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에서 일본군 군사기지 관련 국내·외 자료들을 번역. 이번 조사 대상지 포함

4. 연구 기간 및 연구진

□ 연구수행기간 :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27일

□ 연구 대상의 시기 : 190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이전

□ 연구대상 공간 : 거제시 전역

□ 연구진 : 책임연구원 전갑생(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원 고영화(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 자문회의(예정)

■ 2020년 12월

- 참석자 : 김종현(배재대학교 교수·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위원)
- 자문내용 : 국가등록문화재 및 근대문화유산 등록 자문

■ 2020년 12월

- 참석자 :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한국사연구회 회장)
- 자문내용 : 역사 관련 평가 및 자문

□ 국외 기록물 수집 조사 및 목록작업

-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및 국회도서관 기록물 조사 실시

일정	방문 장소	내용	비 고
2020. 12. 16(수)	일본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개항기 이후 거제지역 일본인 이주 및 생활경제, 일본군 군사기지 설치 관련 자료 수집	
2020. 12. 17(목)	외무성 외교사료관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거주와 정치경제 자료 수집	
2020. 12. 18(금)	방위성 방위연구소 국회도서관	1900년 이후 일본군 군사기지 관련 자료 수집	

□ 근대건조물 현장조사 실시

일정	방문장소	내용	비 고
1차 2020. 12.8-9	장목면 송진포·저도 하청면 칠천도	송진포 방비대 구영 통신소 저도 칠천도 일본인상점	
2차 12. 15	옥포동 일운면 구조라·지세 포·지심도	일본인 송덕비 지심도	
	장승포동 일원	장승포신사 장승포 방파제 일본인 납골당	

제2장

거제시의 도시 공간 및 지리·인문학적 환경

제1절 개관

거제시는 동쪽으로 부산광역시 가덕도와 직선거리 9km에 위치하고 북서쪽에 통영시와 신거제대교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북서쪽 해안에 진해만을 끼고 마산·고성과 마주하며, 남쪽부터 남동쪽으로 쓰시마(對馬島)시와 마주하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면적 403.23km²: 섬둘레 443km²)이며 유인도 11개, 무인도서 51개를 포함.¹⁾ 현재의 지리 경관에서 1900년 전후 거제의 도시 공간과 지리·인문학적 환경은 섬이라는 특징과 특수성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섬사람들의 인식과 사고에서 외부로부터 인위적 정주 시도가 지역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비군사적인 영향에서 거제의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해보려는 것

제2절 도시 공간 및 지리학적 환경

1. 거제·동부·둔덕·사등 권역

□ 전형적인 농업기반의 공간

- 지금의 거제면은 1914년 거제군과 통영군 통·폐합 이전까지 거제부의 중심지이며 관청 소재지. 이곳은 거제에서 넓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지만 통영이나 고성·대지주가 다수 토지 소유. 이들 지역사람들은 가까운 통영과 뱃길로 이동하면서 경제활동. 동부면은 거제면과의 유사한 농토와 임업에 경제적 토대를 갖춘 농촌. 둔덕면은 거제면과 인접했으나 통영 한산도와 통영읍내와의 왕래하며 농업의 의존성. 사등면은 거제의 관문이면서 통영 용남과 통영읍내로 이어지는 생활권이고 해면어업. 반농반어라는 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도선운영으로 해상교통의 편리성을 지닌 특성
- 이 권역은 1900~1945년 농토에서 타 지역과 비교해 넓지만 거제군 소재지의 박탈과 상권 상실로 근대도시로의 발전 한계²⁾

1) 거제시는 2019년 12월말 기준에서 일운·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연초·하청·장목 9개면과 장승포·능포·아주·옥포1·2·장평·고현·상문·수양 9개동으로 총 18개면·동이며 법정동 14개, 통 188개, 법정리 75개, 행정리 206개, 반 1,885개, 출장소 3개소이다.

2) 「釜山巨濟間航路」 『每日申報』, 1912년 8월 31일 ; 「巨濟島民 死活問題」 『東亞日報』, 1924년 9월 18일.

2. 장목·하청·연초 권역

□ 반농반어의 공간

- 장목면은 진해만을 끼고 있어 조선시대부터 왕실 어장의 중요한 곳. 넓은 농토보다는 바다를 통해 생활경제를 이끌어가는 어촌. 이수도와 저도는 주변 어장에서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진해만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항로. 하청면은 칠천도와 하청리 일대의 해면 어업과 농토를 가진 반농반어지역. 연초면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거제면과 동일한 전형적인 농촌마을
- 도시의 확장성에서 연초면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지와 바다를 끼고 있어 중소규모의 도시나 상권 형성에 제한. 개항기부터 해방 이전까지 3개면은 해상교통에서 편리함을 갖고 있었지만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했으며 송진포 방비대 건설과 맞물려 진해만 일대가 통제된 지역

3. 일운·이운면(장승포) 권역

□ 어업과 상권의 확장성 공간

- 1914년 거제군에서 통영군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이운면은 구 장승포읍과 고현·수월·상동 등을 포함한 대형 면이었고 일본인 계절어업과 포경업 등 수산업 중심지이며 아주·아양의 넓은 농토와 장승포 지역에 상권까지 지닌 소도시. 능포와 장승포, 아양 일대에 조선 명례궁의 왕실 어장이 산재³⁾
- 일운면은 지세포와 구조라 지역에 어업이주어촌 설립과 수산업 중심. 하지만 지세포는 좁지 않은 농토와 해안을 끼고 있는 특성.

제3절 인문학적 환경

1. 인문학적 배경

□ 행정구역의 변동과 박탈감

- 거제는 거제현 → 거제부 → 거제군으로 고려·조선시대까지 명칭보다 현에서 부·군으로 달라진 위상을 엿볼 수 있으며 1895년 통제영 폐지와 1900년 진남군 설치에 따라 급변하는 근대의 행정정책을 감내
- 결국 1914년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 통폐합을 추진. 거제군은 용남군과 통합되면서 통영군에 복속. 1914년 1월 15일 거제군 존치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진정서와 경상남도과 거제군은 조선총독부에 올린 여러 호소. 그러나 총독부

3) 「거제도의 교통」 『每日申報』 1912년 8월 12일, 10월 4일 ; 전갑생, 「1920년대 거제지역 청년운동과 민족운동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1집, 2012년 4월 참조.

는 일본인 중심의 로비와 정치 확장, 조선인보다 일본인의 ‘민족적 차별성’에 따라 거제군을 폐지⁴⁾

- 이 여파로 거제군 소재지 거제면의 행정기구 및 상권 상실에 따라 이운면 장승포의 일본인 거류지가 구 거제의 중심지로 탈바꿈

2. 인문학적 환경

□ 통제영의 경제적 복속 탈피와 사유화

- 1895년 통제영 폐지는 거제 내 어장 및 둔전을 비롯한 토지의 점유 권한에서 벗어나 거제군 또는 사유화 가능성 확장. 반면 일본인들의 어장 또는 토지의 대부분 매매로 이어져 또 다른 종속성. 조선 왕실 어장은 조선총독부 이왕직 밑으로 복속되고 대부분 일본인들에게 대부.⁵⁾
- 토지는 통영지역의 대지주 김삼주, 김현국, 김덕보 등이 구 통제영의 둔전 및 토지 등을 대량 매입.

□ 일본인 중심의 상권 장악과 군사화(militarization)

- 1883년 6월 22일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에 따라 일본 어선은 전라·경상·강원·함경도에, 조선 어선은 히젠(備前)·지쿠젠(筑前)·나가도(長門)·이시미(石見)·이즈모(出雲)·쓰시마(對馬島) 등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었지만 사적 화물을 무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 1887년 4월 카가와(香川) 어업자는 거제도 등지를 어업근거지로 삼았음. 그들은 주로 9월~11월 사이에 전복, 1월~3월에 해삼을 채취함.
- 1899년 10월 20일 마산포에 러시아가 조차하려고 하자 일제가 방해. 이어서 러시아가 거제도를 조차하려고 나서자 일제에서 조직적으로 방해. 재조선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는 외무성의 지시를 받아 러시아의 조차 방해와 거제도를 병영(兵營)계획을 추진⁶⁾
- 마산포 사건 이후 일제는 러시아와의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거제도 일대에 병영과 군사 시설 등을 계획하면서 가근거지 송진포 방비대 설치를 위한 군사화.
- 군사화는 군사주의가 사회에 침투하는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과정과 그것이 사회화, 일상화, 내면화된 결과와의 그 영향. 군사주의는 군사기구가 시민의

4) 朝鮮總督府, 「巨濟郡 存置ノ関スル陳情書ノ件」大正三年 四月 八日(국가기록원 CJA0002550).

5) 「驛屯土 및 牧場以外 國有 各地種 調査」, 『中樞院調査資料』, 11. 漁基.

6) 外務省, 「1. 宮本大丞朝鮮理事始末 六/2 明治9年8月1日から明治9年9月1日」 『對韓政策關係雜纂/宮本大丞朝鮮理事始末』 第二卷, 明治三十二年 十月 二十日(아시아역사자료센터 : B03030156800).

생활과 행동을 계속해서 통제하려는 경향. 군사화의 징표로 권위주의 통치, 군사비 증가, 무기거래, 쿠데타, 군 출신의 정치·사회적 진출 증대, 이분법적 사고 확산 등. 연관 현상은 군사 충돌 및 충돌 위험, 폭력의존적 문제해결, 상복하복, 국가주의, 가부장제, 권위주의, 비합리적 차별.

- 이러한 개념에서 일제의 군사화는 송진포 방비대가 거제도 사람들의 주거지를 강탈해 소개시켜 군사시설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목을 비롯한 거제 전역에 군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군사비 증액과 무기 증설. 결국 러일 전쟁을 통한 군사 충돌로 이어졌고 1920년대 추가 시설 및 아시아-태평양전쟁 등 연속전쟁

제4절 재조일본인의 거주와 군사 환경 변화

1. 개항 이후 재조일본인의 계절어업과 정주어업

□ 통제영 폐영 이후 일본 어업자 이주

- 통제영 시기 거제에 1885년 일본의 후쿠오카 하카다(博多)의 치쿠호(筑豊) 수산조합이 장승포에 어업근거지를 설치해 4,828명을 동원, 4,000엔의 적립금과 4,300엔 부현 보조비를 받아 계절어업 시작. 1888년 거제도 근해에 카가와현(香川縣)의 한 어부가 부자망(浮刺網)에 해당하는 유망(流網)으로 삼치 어업을 시도하고 그 어업의 효시자가 되었다.⁷⁾ 1889년 후쿠오카 치쿠에(筑上)군 우노시마(宇島)의 도요타(豊田)수산조합은 1,641명이 부현(府縣) 보조비 1,888엔을 받아 장승포에서 어업활동. 1889년 히로시마현 어민의 멸치 어선 23통이 선단으로 입어하고, 그 후 계속하여 매년 7월에서 11월에 걸쳐 거제도에 임시거주
- 1895년 통제영 폐영 직후 거제 연근해 어장들은 조선인과 일본인들에게 전부 개방되기에 이름. 일본은 1897년 원양어업장려법과 조선어업협회를 제정 및 설립했는데 1899년 6월 일본 농상공부는 각 부·현마다 한해통어조합연합회(韓海通漁組合聯合會)을 조직하고, 1900년 3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던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가 설립⁸⁾되었음. 이들은 생선, 염장, 건어물 3가지 방법으로 판매하고, 선어(鮮魚)·활어(活魚)·염장어(鹽藏魚)·건어 등으로 처리하여 본국에 보냈음.
- 이에 1900년 12월 25일 거제 어민들은 일본 어선이 갑자기 몰려 굶어죽게 되었다고 정부에 호소함.⁹⁾ 이미 1900년 10월 거제·고성 등지에 일본 통어조합은 어망 130여 개, 어선 595척, 어업노동자 4,200여 명이었음. 한 어망에서 3,000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음.¹⁰⁾ 일본 어민들이 증가하자 울산,

7) 吉田敬市, 앞의 책, 199쪽.

8) 葛生修亮, 『韓海通漁指針』, 黑龍會, 1903년, 20쪽.

9) 『皇城新聞』, 1900년 12월 25일.

부산, 마산, 삼천포를 거쳐 통영까지 오는 ‘한국연해운행’ 특허자 기선 신류마루(神龍丸)을 운행함.¹¹⁾

□ 재조일본 어업자 이주 과정

- 진해만과 인접한 장목면의 외포·시방·대금·송진·관농(관포)·농소 마을에 집중. 그 외 사등면 성포, 일운면 구조라와 지세포, 이운면 이리사무라, 하청면 칠천도 등 총 10개소에 이주어촌 건설. 집단 거류지는 이리사촌(入佐村), 미네타니촌(峰谷村), 가가와촌(香川村).

<표1> 거제지역의 일본인 이주어촌(인구수 1914년 현재)¹²⁾

이주지	창설년	이주어촌형태		호수	인구	학교조합	공공시설
		자유	보조				
入佐村	1904	—		142	594	0	0
외포리	1909	0	—	7	42		
시방리	1909	0	—	4	43		
대금리	1909	0	—	2	4		
지세포	1897	0					
(香川村)							
송진포	1912	—		28	138	0	0
관농리	1909	0	—	5	14		
농소리	1909	0	—	5	19		
峰谷村	1905	0	—	74	306		
(칠천도)							
구조라	1893	0	—				
성포	1894	0	—				

- 일본인 거류지의 상권과 근대 일본 건조물 신축은 장승포 이리사촌을 중심으로 증가. 주요 건물들은 상점, 여관, 요리점, 유곽, 금융기관(금융조합), 우편국 등. 하지만 같은 지세포와 칠천도, 성포 등지는 소규모 상점과 금융조합에 한정

1) 재거제 일본인 이주어촌 현황

□ 구조라

- 1889년 구조라에 일본 어민들이 첫 어업근거지로 삼아 계절마다 어업 활동. 1893년 5월 에히메(愛媛) 우오시마무라(魚島村)의 요코이 시요헤이(横井庄平)와 오야시 센사쿠(大林善作) 두 명이 임의 이주형태로 멸치어업 시작.

10) 「韓海日漁의 増加」 『皇城新聞』, 1900년 10월 23일.

11) 「報請築阜」 『大韓毎日申報』, 1906년 3월 24일.

12) 朝鮮水産組合, 『水産統計要覽』, 1914, 78~89쪽 ;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朝鮮水産會, 1954, 『朝鮮水産開發史』, 463~479쪽 ; 慶尙南道, 1921, 『慶尙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 김수희, 앞의 논문, 151쪽 재인용.

1895년 오카야마(岡山)의 옥도정 출신 새우제조업자 키리오카 킨조(桐岡金三, 권현망 어업) 이주. 1907년 일본인회 조직과 1912년 향만도로 개설. 고등어의 품어로 어업자 36가구 300명으로 증가.

- 1913년 에히메현 원양어업단연합회에서 1,500원 투자(부속건물 1동 건립). 1914년 3월 어업자 42가구 모집해 그 중 어업자 12가구, 멸치 고등어 건착·권현망 어업. 고등어어기에 어선 300척 내외, 동력운반선 25~26척. 효고(兵庫)·오카야마(岡山)·도토리(鳥取)·야마구치(山口)·사가현(佐賀縣)이주¹³⁾. 1915년 57가구 184명 이주. 구조라 심상소학교조합, 구조라심상소학교, 구조라현병출장소 신설. 1913년 에히메현(愛媛縣) 이주어업근거지로 설정한 이후 약 400명. 이주 직업, 어업자 10가구·상업 15가구·대공(大工) 2가구·통직(桶職) 2가구·회조업(回漕業) 1가구·요리집 2가구·음식점 1가구·이발업 1가구¹⁴⁾.
- 1920년 말 현재 56가구 304명이 거주(연 어획고 750,000원).¹⁵⁾ 그러나 1922년 말 27가구 121명(남 68명, 여 53명)¹⁶⁾으로 1920년과 비교해 29가구와 183명이 크게 줄어. 장승포 이리사촌에 흡수, 와현·지세포 등지로 분산 또는 일본으로 귀환

□ 지세포의 강가와촌(香川村)

- 1906년 강가와(香川縣)수산조합, 어업자 30가구로 시작. 1907년 10가구 추가해 40가구로 증가. 1908년 50가구까지 늘어났지만 1913년 강가와현 어업자들에게 경영권 위임 후 사업 실패로 귀환
- 1911년 토토리(鳥取)현수산조합, 39가구 이주. 1920년 이주자 32가구 150명까지 늘어났지만 멸치어업 하다가 사업 실패¹⁷⁾
- 1915년 39가구 315명(어업 32가구·농업 2가구·상업 5가구·공업 기타 6가구) 315명으로 어촌 유지. 지세포심상소학교(1908. 10) 및 조합(1910. 7. 19), 지세포 우편소(1913. 11. 11) 등 건설¹⁸⁾. 구조라-지세포, 지세포-거제읍내도로 개수¹⁹⁾. 1922년 말 지세포 강가와촌 31가구 145명으로 감소²⁰⁾

□ 장승포의 이리사촌(入佐村)

- 조선해수산조합(朝鮮海水産組合), 토지와 가옥 건축 예산 책정. 토지 매수비 부지 약 2,000평, 황무지 약 50,000평, 가옥건축비 중 어가(漁家) 55호(2,069원·

13) 農商工部水産局, 「朝鮮主要移住漁村年表」, 『韓國水産誌』 1집, 1908, 464쪽.

14) 山本精一, 『統營邑の案内』, 南鮮日報 統營支局, 1915, 120쪽.

15)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内地人』 調査資料第二輯, 1923, 149쪽.

16)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内地人』 調査資料第二輯, 1923, 9쪽.

17) 高知縣 内務部, 1914, 『朝鮮海漁業視察報告書』, 87~88쪽; 農商工部水産局, 「朝鮮主要移住漁村年表」, 『韓國水産誌』 1집, 1908, 465쪽.

18) 郵便局, 『郵便局所要覽』, 1915, 324~325쪽.

19) 山本精一, 1915, 앞의 책, 121쪽.

20) 朝鮮總督府, 『朝鮮に於ける内地人』 調査資料第二輯, 1923, 183쪽.

건평 275평)·화장실 10평·사무소 및 매점 28평(330원10전)·물치(物置) 20평(151원20전)·설교서 11평(174원60전)·제조소 19평(158원)·매립비 358원 총 3,405원 80전.

- 초기 거주자 매점 1가구 남자 2명, 어업자 2가구 9명(와카야마현 어민 5명 부산에서 대구어 어업에 고용, 어린아이 2명 환자), 1가구 8명 나가사키(長崎)의 히라도 나카노촌(平戸 中野村) 부부 및 종업원 3가구(가족 3명·여자 아이 3명). 1905년 8월 20일 태풍으로 건물 큰 피해(33가구 유실).
- 1905년 1월 17일 한국정부, 마산영사관 구역 내 경찰관 주재소 설치.²¹⁾ 1905년 12월 후쿠오카(福岡), 에이히메(愛媛), 와카야마(和歌山), 도쿠시마(徳島), 나가사키(長崎)현 등에서 17호 이주. 조합장 후쿠오카 출신 이리사 세이세이(入佐清靜)²²⁾의 성을 따서 촌명을 이리사촌(入佐村)이라고 명명. 초기 촌의 규모는 주택지 약 1,900평, 망간장(網干場)용 간척지 2,400여 평, 채원용(菜園用) 원야 36,000평 매수. 해안에 길이 약 216미터 방조제 축조 뒤 어사(漁舍) 건축. 수산물 판매소, 감독사무소, 수산물제조장 추가 건설.²³⁾
- 1906년 7월 후쿠오카의 조선수산조합 대의원 겸 동헌 통어장려소장 오다 슈지로(太田種次郎), 어민 14호 정착. 후쿠오카(福岡), 나가사키(長崎)의 사람들, 어사(漁舍) 13동과 주택 60호 건설²⁴⁾. 이리사촌의 일본인 호수 152호 641명으로 늘어났고 1921년 말 138호, 인구 약700명 중 어업자 73호, 상업 37호. 1932년 일본인 145가구 687명 거주.
- 1908년 4월 6일 관세국은 고시 제1호로 장승포에 세관감시서(稅關監視署)의 개시를 고시²⁵⁾.
- 이리사촌의 어업, 1909년 카시이 켄타로(香推源太郎)의 협력을 받아 고등어 건작망어업 창시, 마루오(丸尾米吉)를 선두로 하여 1911년 조선에서 고등어 건작선의 개척자.²⁶⁾ 풍어기, 건작망·전망(전어) 약 100통, 어선 500척, 종업원 4,500명, 선어운반선으로 기선 140척, 범선 150척²⁷⁾.
- 교통편, 기선으로 장승포-부산간(요금 2등급 1원, 3등급 60전), 장승포-마산간(2등급 80전, 3등급 50전), 장승포-통영간(2등급 2원, 3등급 1원50전), 장승포-삼천포간(2등급 2원50전, 3등급 1원80전) 운행
- 단체 : 이리사촌 일본인회(매년 수입 308원), 콘피라신사(金刀比羅神

21) 「巡廻警察官派遣ニ關スル稟申ニ對シ回訓ノ件」 『日本外交文書』 第38卷 第1冊 703, 明治 38年 1月 17日.

22) 이리사는 가고시마 출신이며 퇴역 육군 중위로서 경찰부장과 조선해수산조합, 재향군인분회장, 부산온축양서주식회사 사장 등을 지냈고 1916년 6월 28일 후쿠오카 대학병원에서 60세로 사망했다 (『釜山日報』, 1916. 7. 3).

23) 吉田敬市, 앞의 책, 261쪽.

24) 조선총독부, 『朝鮮漁業曆』 (1914), 321-328항 참조.

25) 『官報』, 1908. 4. 8.

26) 吉田敬市, 앞의 책, 181항.

27) 거제도 연안에서 어획한 생산물은 滿洲, 旅順, 大連, 일본의 東京, 京都, 大坂, 關東 등지로 수출했다.

祠·1907.10), 어업근거지 감독사무소·이리사무라 우편국(入佐村郵便局, 1877. 11. 1)·이리사무라 심상고등학교(1908. 7. 1)·수산물시장조합·동본원사 장승포출장소(1907. 10)·장승포 헌병파견소(1915. 3. 1)·경찰관주재소·수산물조합·곡물문옥조합·요리옥조합²⁸⁾.

- 1928년 10월 14일 이리사촌 공회당·장승포 신사 완공. 신사 조경 등 공사비 5,100원 전부 기부금 받아 건축. 공회당(현 럭키상사)은 재향군인회와 청년단에서 부지, 건축비 3,450원 기부 받아 준공²⁹⁾.
- 장승포의 재조일본인 유력자 : 오다(太田種次郎, 1892년생·촌장·어업조합 이사·한국수산물조합 대의원·이리사학교조합 관리자·장승포어업조합장·조선수산물조합출장소장·공동판매소장)³⁰⁾, 사카쿠라(坂倉浩, 1871년생·1904년 12월 이리사우편소 소장·정치망 어업·1935년 거제전기회사 사장·해운상회 대표·민선 도회의원·진해만정치어업수산물조합 조합장)³¹⁾, 가네마루(金丸源一·1930년 장승포양조장 설립)³²⁾ 등
- 1932년 장승포 방파제 축조, 수산물시장, 후쿠오카 축풍·풍전수산물조합, 나가사키현 원양어업단, 시마네현 수산물조합, 카시이 구미(香椎組), 조선해수산물조합지부³³⁾ 등 설치

□ 칠천도의 미네타니촌(蜂谷村)

- 1905년 에이메현(愛媛縣) 미네타니 미나요시(峰谷源吉), 자기 이름을 따서 미네타니촌(蜂谷村) 건설. 74 가구 인구 306명(남 174명·여 132명)이 어업·농업이민³⁴⁾.
- 1907년 에이메현 오치군(越智郡) 미야쿠보촌(宮窪村)에서 2세대 9명(남 7명 여 2명), 1908년 4세대 17명(남 11명 여 6명), 니이군(新居郡) 사이조촌(西條村) 주민인 8세대 32명(남 20명 여 12명), 1910년 미야쿠보촌(宮窪村) 주민인 3세대 9명(남 5명 여 4명), 1911년 미시마촌(三島村) 주민인 4세대 20명(남 10명 여 10명) 이주.
- 에이메현(愛媛縣) 원해출어단체연합회(遠海出漁團體聯合會) 보조 받아 1906년 미야쿠보촌(宮窪村) 주민인 2세대 9명(남 2명 여 7명), 1907년 같은 마을 주민인 2세대 11명(남 7명 여 6명), 1910년 미시마촌(三島村) 주민인 4세대 19명(남 10명 여 9명) 이주. 1921년 어업자 25가구, 어선수 83척, 어획고 261,500원, 1가구 어획고 10,460원, 어선 1척 당 어획고 3,151원 수익³⁵⁾.

28) 농상공부수산물, 『韓國水産誌』 (제2권, 1910), 621~622항.

29) 「御大典記念神社と公會堂か十四日上梁式擧げ巨濟の入佐村民歡喜す」 『釜山日報』, 1928. 10. 17.

30) 『재조선내지인신사명감』, 118쪽.

31) 『조선인사홍신록』, 213쪽; 『조선공로자명감』, 300쪽; 『조선총독부시정25주년기념표창자명감』, 428쪽.

32) 「巨濟島 木谷氏 訃」 『釜山日報』, 1929. 2. 9.

33) 藤戸計太, 『最新 朝鮮地理』, 京城日報社代理部, 1932, 524쪽.

34) 조선수산물조합 『수산물통계요람』 (조선부산물조선수산물조합), 1914, 78~89쪽.

일본 어민들은 멸치업자들로 시기가 끝나면 일본으로 귀향. 일부 어민들은 금곡과 옥계에 거주. 1921년 일본인 직업분포, 어업자 46세대(177명)·상업자 1세대(4명)·기타 8세대(26명) 총 54세대 207명.

- 신사(神社) 및 본원사(本願寺) 출장소, 우편소, 공립심상보통학교 및 조합(1909. 6) 설치. 칠천도청년단 설립³⁶⁾.
- 교통 : 진해환(鎭海丸·33톤급), 매일 마산, 진해, 송진포, 하청, 칠천도 하찌아촌(峯谷村)을 거쳐 성포 운행.

□ 그 외 지역

- 송진포는 1912년 28가구 138명 어업조합 및 송진포심상소학교 및 학교조합 설립. 송진포방비대가 진해로 이동하면서 그 자리에 이주. 성포는 1894년에 20가구이며 성포심상소학교 및 학교조합과 어업조합 설립. 관농 1909년 5가구 14명이고 농소리 5가구 19명, 대금리 1909년 2가구 4명, 외포리 1909년 7가구 42가구, 시방 1909년 4가구 43명 등.

<표2> 1924년 거제지역의 인구와 일본인 이주현황

지역	조선인		일본인		일본어업 이주촌 ³⁷⁾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지역	이주시기	주요시설
거제	1101	6100	32	100	동상		학교조합, 우편소, 헌변분견소, 공립심상소학교, 어업조합
장목	1266	7096	42	155	송진포	1912	학교조합, 우편소, 진해방비대(1912년 진해로 이전)
					외포	1909	
					관농	1909	
					농소	1909	
둔덕	843	5018	2	6	대금	1909	
사등	850	4823	31	151	성포	1905	학교조합
일운	1253	7404	60	262	구조라	1893	헌병출장소, 학교조합, 공립심상소학교, 우편소, 신사
					지세포 香川村	1897	학교조합, 공립심상소학교, 우편소, 신사
이운	1413	7660	153	623	장승포 入佐村	1904	헌병파견소, 우편소, 학교조합, 본원사포교소, 세관감시서, 수산물시장, 어업조합, 신

35) 경상남도, 『慶尙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경상남도, 1921.

36) 조선수산회 『朝鮮主要移住漁村年表』, 471쪽.

37) 農商工部水産局, 「朝鮮主要移住漁村年表」 『韓國水産誌』 제1집, 1908, 464~470 ; 慶尙南道, 『慶

동부	1511	8585	22	100	저구		사
하청	903	5470	49	185	칠천도 峰谷村	1905	학교조합, 우편소 공립심상소학교
연초	1107	6343	2	5			
계	10,247	58,499	393	1,587			

<표2>에서 장승포, 일운면 구조라·지세포, 하청면 칠천도, 사등면 성포, 장목면 일대 등지는 고등어와 대구·멸치·청어가 매년 풍어를 기록하는 곳이었다.³⁸⁾

2) 재거제 일본인촌의 건조물 현황

□ 장승포의 이리사촌

- 건조물 : 1989년 유곽, 요리점(삼대함흥냉면), 일반 가옥, 공회당(지금의 럭키상사), 장승포 지구대, 방파제, 장승포 신사 및 납골당 등 20여 곳. 지금 현재 공회당과 요리점 1곳, 장승포 신사 터와 조형물, 납골당
- 인물유산 : 오타(太田) 집안의 조형물 2기

□ 일운면

- 인물유산 : 구조라 송덕비

□ 장목 및 하청면

- 건조물 : 칠천도 옥계 가옥 1동, 금곡 일본인 절 및 주택 1동
- 인물유산 : 칠천초등학교 교정 구 일본군 오장 기념비 1개, 일본인 절 지주 기념비 1개

2. 러일전쟁 전후 거제의 군사 환경

1) 송진포 방비대 설치 과정³⁹⁾

□ 러일전쟁 직전 거제

- 1900년 10월 대한제국 궁내부, 일본공사에게 거제 등지 어장에 일본인들 침입해 고기잡이하고 있다고 항의. 대한제국과 러시아의 밀약(박제순 외부대신-파브로프 공사)에 따라 마산항과 거제도 조차 허용. 결국 일본은 한국정부와 러시아의 밀약을 알고 파기 압력. 그 결과 러시아-일본의 군사 충돌

尙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1921 참조.

38) 農商工部水産局, 위의 책, 1908 ; 藤戸計太, 『最新 朝鮮地理』, 京城日報社 代理部, 1932 ; 『東亞日報』, 1923. 12. 20, 1926. 9. 16 참조.

39) 『日露戰役時 韓國에서 帝國의 軍事經營 一件』, 1905.

□ 송진포 방비대 군사시설 설치

- 일제, 1903년 12월 28일 해군에 지시해 ‘가근거지 방비 준비대 계획’ 수립 지시. 연초·장목면 일대는 군용지로 지정되어 대규모의 농토와 임야 징발⁴⁰⁾. 방비대는 송진포에 군사시설을 갖추고 방비대 군령을 발표.⁴¹⁾ 1904년 2월 20일 정식으로 ‘송진포 방비대’ 설치. 일본 해군의 1차 계획은 진해만, 죽림포, 통영만 등지에 수력발전소 건설. 거제도 북단 소고도(小高島·부표 수력발전기·전기 등 3개선 부설), 구영등(지금의 구영·발전기소 1개소·영등산성 전 등 1개설치), 죽림포(울포만 - 봉암도 동단 - 쌍근 부표 수력발전기 2개선 부설), 쌍근(수력발전기소 1개소), 백서도(白嶼島 부근 해면 해저수력발전기 14개·부표 7개), 관포(수력발전소), 1904년 2월 7일 죽림만 죽도 및 오수리 13개 부표 설치
- 일본해군 포대 설치, 관포포대(1904. 3. 29), 거제도 북단 광이도 포대(4. 8), 앵도포대(鶯島·4. 9), 실리도포대(實里島·4. 10), 소고도포대(4. 11), 한도수도포대(5. 13), 견내량포대(왜성 터·5. 28), 쌍근포대(5. 28), 한산항포대(6.7) 설치 완료
- 통신시설 : 고현성(1904. 3. 7), 앵도(3. 31), 저도(북쪽·5. 3), 가라산 무선전신소(5. 19), 한산도(5. 30), 가조도 옥녀봉(6. 4), 가조도(6. 4), 대금산(2. 7). 전등은 앵도 심해(4. 18), 실리도 심해(4. 19), 구영 부근 심해(4. 24), 광이도 부근 심해(5. 7). 방재(防材·바다의 방책)는 송진포 항구(5. 16 칠천도 방재를 폐하고 5. 18 완성), 하청만 서구(2. 11 부설하여 5. 21 철거) 설치
- 송진포방비대(1904. 8) 설치. 1904년 2월 1일 일본해군사령부 3척의 함선 진해만과 송진포에 파견. 2월 6일 6정찰대 외 29개 부대 송진포 및 가조도로 이동.
- 병사 건설 : 병사(兵舍), 탄약고, 병원, 창고 건설. 궁농의 발전소, 관포 포대 추가 건설

□ 1910~1940년 송진포 방비대 및 지방방어구

- 송진포 및 저도 일대 군사 시설은 1910년 6월부터 송진포 방비대에서 진해 방비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군용지로 재활용되거나 조선총독부에 이관. 1912년 11월 16일 송진포 방비대의 옛 병사 300여 명의 목조기와 건물 조

40) 거제지역의 일본군 점령 지역에 대하여 조선은 전담과 가옥 등을 조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內藏院編, 『慶尙南道巨濟郡日兵留住處田畝結數作者姓名成冊』, 光武八年 ; 巨濟郡編, 『慶尙南道巨濟郡鎮海灣軍港地赤線內延草河靑兩面八洞家舍人口田畝卜數山林塚墓調査成冊』, 光武十年 참조.

41) 장목면 송진포 인근에는 포대 10개소, 신호소 및 전신소 14개소를 설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自明治39年 至同45年 鎮海永興關係書類」 『公文備考』 卷133 16~17, 明治45年~大正元年(아시아역사자료센터) 참고.

선충독부로 이관. 1921년 9월 송진포의 전답 및 임야 68,195평과 장목리 69,188평 등 총 137,333평의 송진포 방비대 구역 송진포 방비대 구역. 구영리 옛 영등성 구역 33,000평 모두 총독부로 이관. 이들 군용지 일부는 일본인 주택지로 대부. 일부 부지는 1928년 10월 13일 송진포 일본해 해전기념비 건립의 부지로 편입⁴²⁾

- 1937년 5월 16~1938년 5월 15일 장목면 시방리 181번지 밭 317평 외 181-1번지를 포함 1,404평을 시방리 방어지구로 지정하고 건조장 및 오두막 건축.

□ 1910~1940년 저도 군사시설 변화

- 1904년 8월 27일 저도 약 50호 정도의 한국인 거주. 1905년 1월 3임시축성단 저도 중포대 해안의 방공호 및 해안 벽 공사, 2월 1일 저도는 중포대(重砲臺), 측원기 1개, 포대경 2개 설치하고 2개 포병 중대 배치. 1906년 3월 3일 저도 주민 모두 소개.
- 주요 건물 신축 : 1908년 7월 22일 저도 1감수위병소 건물 건축, 1909년 8월 17일 1과 3경포 포대 탄약고(콘크리트) 및 각 교통로 수리, 1913년 7월 12일 저도 황색 화약고 증축(6평), 1920년 4월 9일 감수위사 신축(2500엔)과 감시위병소 개축(1800엔)
- 포대 수리 : 1921년 5월 18일 포대 수리비 1872엔, 3포좌(포 자리) 수선, 포측고(포 탄약고)의 전면 벽 수선, 전등 및 좌명 자리 난간 설비 등
- 1926년 9월 8일 통신소 28mm 포대(전체 길이 180미터)와 28mm 포대의 관측소, 2경포 포대, 2경포 포대의 예비관측소, 좌측 관측소의 전등, 28mm 포대의 탄약실(목제) 등이 존재. 1928년 2월 15일 검호소 잔교(棧橋:계선장) 설치.
- 1937년 6월 38식 야전포 설치. 1940년 8월 14일 '진해만요새사령부 마산중포병연대 저도요새 포병중대'에 28mm 4문 배치.

□ 1910~1940년 능포리 및 일운면 지심도 포대

- 1925년 2월 26일 능포 양지암 일대 포대 설치. 전체 면적 310,897평에 포대 및 막사 건설. 1928년 3월 30일 능포리 주민들 진해요항사령부의 군용지 해제 청원⁴³⁾
- 1936년 4월 23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를 비롯한 쓰시마, 이키, 시모노세키 등과 함께 포대 설치 등을 추진.⁴⁴⁾ 6월 4일 지심도 헌병분주소(군조 1

42) 松直浦ニ日本海々戦記念碑設立ノ件, 1928. 10. 13.

43) 要塞地帯内居民等の陳情書提出の件, 「密大日記」第3冊, 1928. 3. 30.

44) 「下関, 壱岐, 津島, 鎮海湾及津輕要塞の一部砲台建設の件」(C01005452300), 1936. 12.

명·상등병 2명·헌병보 1명 총 4명) 설치. 1937년 7월 31일 지심도 포대 및 전등소 준공. 지심도 중포대(부대원 15명) 측원기 1대, 38식 기관총 78대, 15mm 박격포대 10기, 30mm 박격포 1기를 각각 배치

3.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거제의 군사 변화

□ 1941년 거제지역 최후 방어진지 구축

- 저도는 1942년 3월 ‘진해만 저도 연습창 건물’ 신축. 장교실, 하사관실, 병사, 잡구고(창고), 매점(酒保), 욕실, 취사장 등을 축성부 본부에서 건설
- 1941년 이후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은 지심도, 양지암, 장목 구영 등지에 잠수함 기지와 수뢰 매설 등 남해안 지역의 최후 방어선을 구축했다.⁴⁵⁾
- 1942년 7월 외포리 중포대 및 송진포 군위대(軍威臺)설치.

45) 「昭和17年2月1日～昭和17年2月28日 佐世保鎮守府戦時日誌(5)」『戦闘詳報 戦時日誌』, 1943. 2. 1~2. 28.

제3장

거제시 근대건조물 분야별 개관

제1절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및 건조물 규정

1. 근대문화유산 개념

□ 등록문화재란

- 목적 :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로서의 가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것을 폭넓게 등록, 완화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유자의 지주적인 보호를 기대
- 대상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법 제53조 제1항)
- 등록기준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참조)
- 관리 :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 원형 보존에 노력,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할 수 없으면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 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음

□ 근대문화유산의 정의

- 그 시대의 경제, 정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결과물로 근대문화 유산은 특정 역사적 사건, 관련된 인물, 문화적 가치 등의 다양한 성격을 내포. 이 시기에 형성된 건축물 또한 당대의 문화·역사를 반영하는 결과물로서 보존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 근대문화유산 유형분류

□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분류

분야	번호	종별	내용
유적건조물	1	주거생활	주거지, 주거건축, 조경건축, 근대주거
	2	정치국방	근대정치국방
	3	교통·통신	교통, 통신, 근대교통 및 통신시설
	4	교육문화	근대교육문화
	5	유물분포지, 유적산포지	육상유물 및 수중유물산포지, 유적분포지
	6	무덤	근대무덤
	7	산업생산	근대산업생산
	8	종교신앙	불교, 천주교, 개신교, 민족종교 민간 신앙
	9	인물사건	근대인물

□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유형분류

- 근대건축은 근대시기에 형성된 건축물로 사적, 등록문화재 등에 분포되어 있음
- 건조물 부문 : 건축물, 산업구조물, 생활문화유산, 역사유적, 인물유적으로 나누고 군사유산이 들어감

분야	번호	종별	내용
건축 시설물	1	종교시설	불교, 천주교, 개신교, 민족종교 민간 신앙
	2	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
	3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야학 등
	4	주거숙박	단독주택, 공동주택
	5	전쟁관련시설	기지, 포대, 탄약고, 전동, 발전소 등
	6	문화집회시설	청년회관 등
	7	의료시설	병의원 및 약국 등
	8	산업시설	양조장, 간장공장 등의 공장, 교량, 급수탑, 터널, 댐, 저수지, 간척지
	9	공공시설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 기타 관공서 등
	10	인물기념시설	역사적인 인물
	11	상업시설	이미용원, 세탁소, 목욕탕, 방앗간, 정미소
	12	기타시설물	

- 문화유산 가치 유형 분류 : 가치 유형은 사료적 가치, 인물관련 유물 및 유적, 문화재적 가치, 역사적 가치, 연구 자료적 가치, 문학적 가치, 예술적 가치, 건축적 가치 등으로 구분.

□ 국외 근대문화유산 분류

- 일본 : 199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예 따라 건축물, 토목구조물 및 공작물에 한해 문화재등록제도 도입. 2004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건축물, 구조물 이외의 유형문화재도 등록 대상에 포함 관리. 일본 근대문화유산의 분류체계는 동산에 한해 별도의 분류체계는 조사된 사항 없음. 문화적 경관이라는 문화재 유형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및

농업문화유산에 대응. 분류 종류는 종교, 주거, 학교, 문화, 관공청사, 상업·사업, 근대화유산, 기타

- 미국 : 역사적인 장소 유형의 국가적인 등록(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property types)이라고 건물, 역사적 가치의 가로(Historic districts), 건조물(Objects), 부지(Site), 구조물로 구분해 유형화. 등록 지정에 문화유산의 가치 척도를 판단하는 항목은 사건, 인물, 디자인 및 공법, 자료적 가치 4가지 항목. 등록은 50년 이전의 문화재에 한하지만 50년 이내의 유적 또는 문화재를 등록. 냉전 및 우주개발 현장, 최첨단기술 등 시대적 요구에 의한 새로운 기능을 수용해 문화재 분류대상 지정.
- 프랑스 : 역사적 기념물은 건축, 도시, 경관 유산의 보호지역을 구축. 문화유산 총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2절 거제시 근대건조물 분야별 개관

1. 건축물(가)

□ 종교시설(01)

- 근대 일본과 직결되는 종교는 개항기 부산과 인천 등지에 들어온 동본원사이며 진언종 외에도 항해의 안전을 수호하는 신을 모시는 고도히라(金刀比羅)신사, 일본 시조나 천황들을 모시는 신사 등 다양함. 거제지역의 일본인 거류지 장승포에 1907년 10월 고도히라신사와 동본원사 장승포출장소가 설립되었고, 1921년 장승포 신사가 건립. 1943년 8월 30일 진중본원사와 장승포 포교소, 칠천도에 동본원사 출장소와 지세포와 구조라에 신사가 건립.
- 현재 장승포 신사는 본전 건물 자체가 없지만 돌계단과 도리 일부, 본전을 비롯한 부지가 그대로 보존. 칠천도 연구리 금곡 마을에 동본원사 출장소 건물이 남아 있음

□ 관청업무시설(02)

- 1910년 이후 면제와 주요 관공서가 늘어나 읍·면사무소, 등기소, 우편국, 경찰관주재소 등이 여러 면에 걸쳐 신축. 그러나 거제지역의 급격한 도시팽창과 공동주택 증가와 건물 노후화라는 측면에서 기존 면사무소의 경우 단 한 곳도 일제강점기 건조물이 없는 상태. 등기나 우편국, 경찰관주재소 혹은 경찰서 건물도 마찬가지로 잔존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지심도 포대 헌병주재소는 내·외부의 구조뿐만 아니라 외형도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음

□ 집회시설(03)

- 거제에서 1924년 10월 이운청년회관을 비롯한 1928년 10월 장승포 공회당 등이 건립되면서 사회운동과 지역사회 각종 행사가 개최. 이운청년회관은 일제강점기 조선·

동아일보 거제도지국 및 거제청년동맹을 비롯한 신간회 거제지회 등의 사회단체 사무실 겸 회의 장소. 하지만 대우조선 설립으로 말미암아 건물 보전되지 않았음.

- 장승포 공회당은 1928년 10월 14일 상량식을 거행한 뒤 지금까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업 건물로 활용되고 있음

□ 주거시설(04)

- 일제강점기 재거제 일본인 거류지는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 칠천도, 성포, 송진포, 관포, 농소, 거제 서상 등. 일본인 인구의 증가 추이에서 보면 이리사촌과 지세포 및 구조라, 칠천도 옥계 및 금곡 마을, 장목면 송진포·관포·외포 등지(앞의 <표6> 참조).
- 1930년대 이운면 내 인구현황을 보면 앞의 <표6>에서 달리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구조라 및 지세포 지역 이주어업의 실패에서 나온 원인. 다만 장목면 송진포와 관포·외포지역에 어업 확장했지만 상업보다 어업에 중점.

<표7> 이운면의 인구현황⁴⁶⁾

종별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현재인구	678	3,029	167	693	3	4
1930	311	1,689	157	641	3	8
1931	405	1,885	166	696	3	4
1932	443	2,050	166	684	3	8
1933	568	2,540	172	734	2	7
1934	637	2,805	180	749	3	6

- 하지만 도시의 팽창에 따라 장승포, 지세포 및 구조라, 장목 일대까지 일본인 거주지가 사라지고 있고 기존 가옥도 노후화 또는 신축 등이 늘어난 상태. 장승포 구 이리사촌의 중심지는 요리점, 가옥, 유곽까지 거의 사라지고 변형되어 흔적을 찾기 어려운 상태

□ 상업시설(05)

- 1925년 11월 장승포 이리사촌에 주요한 상점들을 보면 小島德次상점은 양화 잡화점이고 辻漢土상점은 양복전문이면서 당구구락부(撞球俱樂部)를 운영하고, 요시다(吉田茂右工門)상점은 해초와 사쿠라보시(櫻干)제조 및 석탄을 판매, 전국말태랑은 쓰시마 이즈하라 출신으로 해산물 및 어업경영하고 사쿠라보시 제조 및 판매, 후쿠오카(福岡)상점은 과장제조 및 판매, 후지모토(富士本)상점은 잡화상. 요리점은 대석정(大石亭·石垣虎五郎)·신월륜(新月輪)과 당구부 히메노(姫野)·이루루(いろ樓)·치도리(千鳥·川瀬吉造) 등이며 토목건축 및 청부업(荻谷爲次), 鍋島寅吉(하온제조 복물일식), 오타(太田)여관⁴⁷⁾ 등인데 통영과 달리 다양한 업종이 아님
- 현존하는 상업시설은 삼대함흥냉면의 2층 건물.

46) 朝鮮總督府, 「長承浦水道擴張工事設計書」, 1936.

47) 「巨濟島長承浦紹介」 『부산일보』, 1925년 11월 13일 4면.

2. 산업구조물(나)

□ 방파제(01)

- 근대 시기 방파제를 비롯한 사방공사, 도로 및 항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물들을 볼 수 있음. 현재 장승포 방파제는 1929년 2월 22일 장승포리 67-4번지 일대 면적 160평을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1935년 2월 기공해 1936년 8월 5일 준공된 동방파제 90미터와 서방파제 190미터를 완성. 그 이후 몇 차례 보수했지만 초기에 만든 방파제 원형이 그대로 보존

3. 생활문화유산(다)

□ 납골당(01)

- 거제지역의 근대식 납골당은 장승포, 구조라, 칠천도 등지에 산재. 장승포 납골당은 1907년 12월 20일 장승포동 구 대원장 뒤편 1,000여 평에 마련. 이곳에 오타(太田) 집안을 비롯해 여러 일본인 묘지가 조성. 제일 큰 규모는 오타 집안
- 현재 오타 집안의 조형물과 납골단지가 그대로 남아 있음

4. 역사유산(라)

□ 군사(01)

- 거제지역은 1904년 이후 러일전쟁과 중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저도·구영을 비롯한 하청 칠천도·사등 가조도·동부 쌍근·탐포·노자산·천장산 등지와 지심도에 포대·신평호소·탄약고·통신대 등 다양한 유산들이 잔존
- 대표적인 저도는 포대, 중대본부, 통신대, 탄약고 등이 1904~1920년대 신축된 것이며 원형 그대로 보존
- 지심도는 1937년에 병사, 헌병분주소, 포대, 탄약고, 병커, 방향지시석, 전등소 소장 사택 등 다양한 건조물이 존재

□ 기념비 및 조형물 (02)

- 군사 관련 기념비나 조형물은 러일전쟁과 직접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거제시청에 있는 ‘송진포 일본해해전연합함대 근거지기념비’ 일부가 있음. 1931년 5월부터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송진포 일본해해전연합함대 근거지기념비건설회’를 조직해 기념탑과 폐병기 등을 설치하는 조형물도 건설. 앞뒷면 중 앞면만 거제시청에 보관 중이며 나머지 하단석과 일부 탑신은 현장에 있음. 1935년 8월 러일전쟁 시기 일본함대의 사격장이던 취도에 기념비가 설치. 이 비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

5. 인물유산(마)

□ 기념비 (01)

- 현재 잔존하는 일본인 관련 기념비는 장승포 납골당의 오타 가족 묘비와 조형물이고 칠천도 동본원사 출장소의 일본인 승려 기념물, 칠천도초등학교 교정의 일본군 오장의 기념비

□ 송덕비 (02)

- 일본인 송덕비는 구조라와 옥포의 일본인 어업이주들의 송덕비로 확인됨

제4장

근대건조물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제1절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순번	정리번호	분야	종별	명칭	비고
1	20-가-01-01	건축물 (가)	종교시설(01)	장승포 신사	
2	20-가-01-02			칠천도 금곡 본원사 분원	
3	20-가-02-01		관청업무시설 (02)	진해요새령부 지심도 지구 포대 지심도 헌병분주소	
4	20-가-02-02			장승포 헌병파견대	
5	20-가-03-01		집회시설(03)	장승포 공회당	
6	20-가-04-01		주거시설 (04)	지심도 전등소 소장 사택	
7	20-가-05-01		상업시설 (05)	칠천도 일본인 상점	
8	20-가-05-02			장승포 구로키 요리점	
9	20-나-01-01	산업구조물 (나)	방파제(01)	장승포 방파제	
10	20-다-01-01	생활문화유 산 (다)	납골당(01)	장승포 납골당	
11	20-라-01-01	역사유산 (라)	군사(01)	구영 신호소	
12	20-라-01-02			지심도 서치라이트 보관소	
13	20-라-01-03			장목면 저도 포대 1	
14	20-라-01-04			장목면 저도 포대 2	
15	20-라-01-05			장목면 저도 탄약고 1	
16	20-라-01-06			장목면 저도 탄약고 1	
16	20-라-01-06			장목면 저도 중대본부	
17	20-라-01-07			장목면 저도 통신대	
18	20-라-01-08			지심도 포대 1	
19	20-라-01-09			지심도 포대 2	
20	20-라-01-10			지심도 탄약고	
21	20-라-01-11			지심도 중포대 벙커 1	
22	20-라-01-12			지심도 중포대 벙커 2	
23	20-라-02-01			지심도 진해요항사령부 군용지 표지석	
25	20-라-02-02			저도 진해요항사령부 군용지 표 지석	
26	20-라-02-03			진해요항사령부 송진포 가근거지 방비대적	
27	20-라-02-04			진해새항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저도지구 포대 방향지시석	
28	20-라-02-05			송진포 방비대 가근거지 기념탑	
29	20-라-02-06			송진포 방비대 무기관	
30	20-라-02-07			취도 러일전쟁기념탑	
31	20-마-01-01	인물유적 (마)	기념비(01)	장승포 오타 가족 조형물	
32	20-마-01-02			장승포 납골당 오타 가족 조형물	
33	20-마-02-01		송덕비(02)	구조라 일본인 송덕비	
34	20-마-02-01			옥포리 일본인 송덕비	

제2절 건축물(가)

1. 종교시설(01)

1) 장승포 신사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가-01-01
------	------------

분 야		건축물	종 별	종교시설
명 칭		(原) 장승포신사	용 도	(原) 장승포신사
		(現) 구 장승포신사		(現) 구 장승포신사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229-31		
		(現) 거제시 장승포동 229-31		
건립연대		1922년 2월	설계/시공 자	장승포 신사 씨자총대
규모	대지면적	2588㎡	연면적	㎡
	건축 면적	㎡	층 수	
구 조		콘크리트 / 화강암	보존상태	부지 양호/본 건물 없음
양 식		· 구조 : 장승포 신사 계단은 화강암석과 콘크리트 두 종류로 건설. 신사 계단과 붙은 도리(돌기둥)는 2005년 일부 철거되어 신사 인근에 매장. 신사 마당과 본전의 화강암으로 처리한 석축과 본전 내 건물터가 그대로 보전. 세수분(洗手盆·신사에 들어갈 때 손 씻는 화강암의 석물) 있음 계단식 석축에 따라 상단 본전과 하단 사전으로 나뉘져 건축. 본전 및 사전은 모두 목조 건물이나 현존하지 않음		
연혁 및 수리기록		· 1921년 8월 신사 도리 및 계단 축조. · 1928년 10월 18일 곤비라신사 사전(社殿)건축 및 돌계단 추가 건설 계획 수립 · 토지는 장승포리 229에서 분할된 229-5번지와 229-31번지 등인데 229-5번지는 전체 2,158평의 밭이었다.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 제언		· 일제강점기 징병이나 징용 때마다 조선인들까지 장승포 신사에 참배 강요하고 장승포국민학교(지금의 장승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마다 신사참배 해야 하는 이야기를 연결해 역사 교육 마련 필요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부산일보, 1934년 10월 14일 3면		
지정여부	미지정(거제시 미래유산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장승포신사는 1921년 8월 재장승포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건립한 것이며 일본의 황조신 아마테라스오오카미(天照大神)을 모시는 국가신도와 다르지 않다. 장승포신사는 항해하는 배의 안녕을 기원하는 곤비라신사에서 국가신도로 바뀐 곳이다.
- 1921년 8월 조선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씨자총대들이 도리를 건립했다. 이 신사는 1935년 3월 1일 이후 항해하는 배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사에서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숭배하는 신사가 되었다.

〈특 징〉

- 장승포신사는 거제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돌계단이나 부지, 석축 등을 봐도 1921년부터 1940년대까지 여러 차례 보수한 흔적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통영이나 고성 등지에서 장승포신사처럼 남아 있는 곳이 없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장승포리 229-31 / 229, 229-5)
- 「장승포신사의 사전」, 부산일보, 1934년 10월 14일 3면
- 長承浦會, 『마음의 고향 장승포 (心の故郷 長承浦)』, 1998
-



장승포 신사 계단



장승포신사 가마터



장승포신사 도리 명문(1921년 8월 씨자총대)



장승포신사 본전



장승포신사 하단



2020년 12월 본전의 제단

- 자료3



1930년대 장승포신사 총대와 본전, <<마음의 고향 장승포>>



부산일보 1934-10-03 장승포신사의 가을축제. 본전 모습

2) 칠천도 금곡 동본원사 분원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가-01-02
------	------------

분 야		건축물	종 별	종교시설
명 칭		(原) 동본원사 칠천도 분원	용 도	(原) 동본원사 칠천도 분원
		(現) 주거지		(現) 주거지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하청면 연구리 444-2		
		(現) 거제시 하청면 칠천로 371		
건립연대		1922년 이후	설계/시 공사	池本佑與吉
규 모	대지 면적	116㎡	연면적	542평
	건축 면적	㎡	층 수	단층
구 조		목조 기와 /	보존상태	전면 수리
양 식		· 구조 : 원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		
연혁 및 수리기록		· 2010년 현 건물 전면 수리해 골격 외에 흔적이 없음		
스토리텔 링 및 보존활용 제언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부산일보, 1939년 6월 1일 3면		

지정여부	미지정(거제시 미래유산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9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칠천도 미네타니촌의 동본원사 분원은 1907년 7월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미네타니촌은 미네타니 겐키치(峰谷源吉)의 성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다. 1905년 촌에는 74가구 인구 306명(남 174명·여 132명)이 주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곳에 칠천도 신사, 동본원사 분원, 우편소, 미네타니 공립심사보통학교 등과 상점이 있었다. 1921년 미네타니촌에 어업자 46가구 177명, 상업 1가구 4명, 기타 8세대 26명으로 총 54가구 207명으로 1905년보다 줄어들었다.

칠천도 거주 일본인 호수 및 인구수⁴⁸⁾

연도	호수(戶數)	인구수	비고
1909	82	293	주로 어업 부업 농업 히로시마현과 에이메현 사람들
1910	130	400	
1912	82	460	
1919	50	280	
1916	29	116	
1924	54	197	
1932	35	119	

- 주민들은 현존 하는 일본인 가옥을 신사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 건물 마당에서 동본원사 일본인 묘비석과 조형물이 발견되었다.

〈특 징〉

〈관련자료〉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하청면 연구리)

- 부산일보, 1930년 10월 12일 2면, 1934년 12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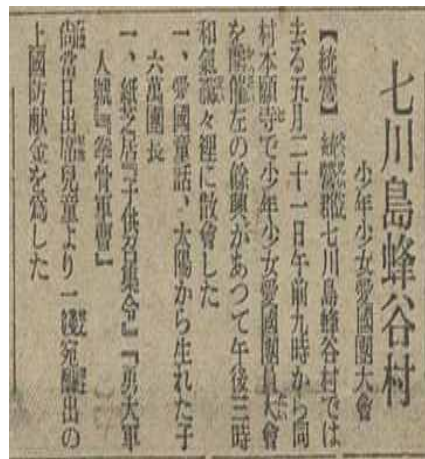
48) 조선총독부편찬, 『最近朝鮮事情要覽』, 1912. 조선총독부, 『朝鮮に於ける内地人』, 1924. 藤戶計太, 『最新朝鮮地理』, 경성일보사대리부, 1932 참조.

- 자료2



2011년 칠천도 동본원사 분원 전경

- 자료3



칠천도 동본원사 출장소에서 소년소녀애국대회 개최, 부산일보 1939-06-01

2. 관청업무시설(02)

1) 진해요새사령부 지심도 지구 포대 지심도 헌병분주소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가-02-01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관청업무시설
명 칭		(原) 진해요새사령부 지심도 지구 포대 헌병분주소(憲兵分駐所)	용 도	(原) 헌병분주소
		(現) 주거지		(現) 주거지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47-10		
		(現)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길 48		
건립연대		1936년 6월 24일	설계/시공 자	육군성 축성부/
규 모	대 지 면 적	198㎡	연면적	㎡
	축 면 적	㎡	층 수	지상 1층
구 조		목조 기와	보존상태	양호/ 일부 개조
양 식		· 구조 : 단층 목조 기와이며 전체 외형은 원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상태이며 내부 일부 개조해 민박집으로 사용		
연혁 및 수리기록		· 1936년 6월 4일 조선헌병대 사령관이 육군성에 요청해 ‘군기보호상’ 설치. · 분주소의 설치 이유 : 첫째, 지심도 공사현장이 해상에서 떨어진 지점이라 교통이 불편하고 요새지대를 경계하고 지킴에 있어 헌병의 순찰이 뜸하므로 군기보호상 경계하고 살필 이유가 충분하다. 둘째, 지심도 입퇴주민 및 바다 건너 거제도 주민은 요새지대에 대한 이해 및 국방관념이 부족하여 특히 외인 기독교교회원의 포교지반이 견고한 것, 외국인의 시찰과 함께 외국의 첩보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경계가 특히 많이 필요하다. · 분주소는 청사 수리비 200엔, 경상비 정리수선비 300엔, 잡경비 300엔으로 총		

	800엔 예산 · 분주소 배치인원 : 군조 1명, 상등병 2명, 헌병보 1명 총 4명이며 대구헌병대 소속. · 구 토지대장에는 1970년 12월 30일 일본육군성에서 국방부로 표시를 변경했다.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 제언	· 일본의 군사화에 대한 비판적 역사수용과 소개된 주민들의 애환 등을 구성할 필요 있음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옥림리 47-10)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所蔵館: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쓰쓰자키·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같은 해 7월 8일 지심도 군사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헌병분주소가 설치되었다. 예산 규모는 경상비 6백원, 임시 2백원으로 책정하고 3개 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주요 인원은 군조(軍曹) 1명, 상등병 2명, 헌병보조 1명 총 4명이고, 본 인원은 대구 헌병대 현 편제 중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병력의 부족으로 증원하기엔 어렵다고 적고 있다. 또 분주소 개설 희망시는 1936년 6월 중순 이후로 요청하고 있다.

<특 징>

- 이 건축물은 지심도에서 전등소 소장 사택 다음으로 잘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제시 관내 일제강점기 헌병분주소 또는 파견소는 장승포 헌병파견소가 있다. 이 건물은 현재 펜션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큰 변형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관련자료〉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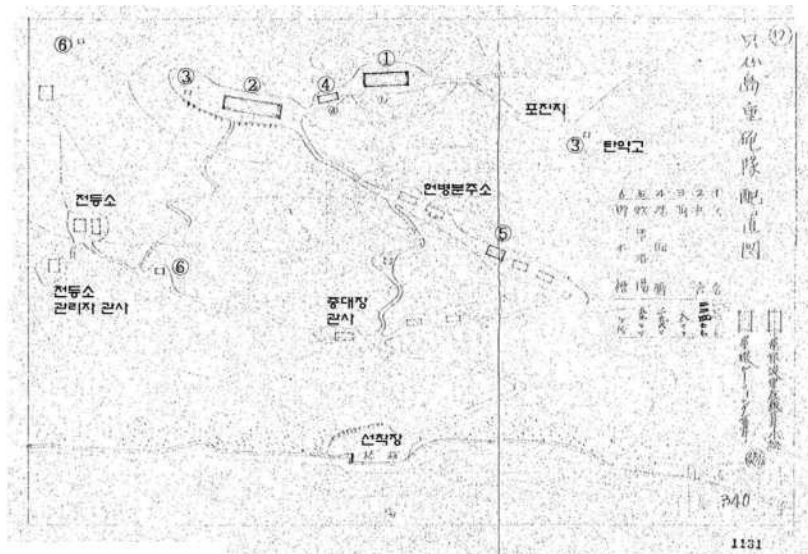
- 부산일보, 1930년 10월 12일 2면, 1934년 12월 18일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
(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 자료2



구 지심도 헌병파견소



지심도중포대 배치도, 조선군경리부, 1941-07

2) 장승포 헌병파견대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가-02-02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관청업무시설
명 칭		(原) 장승포 헌병파견대	용 도	(原) 장승포 헌병파견대
		(現) 구 세브란스병원 거제분원		(現) 구 세브란스병원 거제분원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220-15		
		(現) 거제시 장승포동 220-15		
건립연대		1914년 2월 이후	설계/시공 자	
규 모	대지 면적	122㎡	연면적	㎡
	건축 면적	㎡	층 수	지상 1층
구 조		목조 기와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목조 슬레브 지붕		
연혁 및 수리기록		· 1914년 2월 장승포순사주재소 폐지 이후 헌병파견소 신설되었다. · 1950년 12월 이후 세브란스병원 거제분원		
스토리텔 링 및 보존활용 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1월 12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이 건물은 1914년 2월 장승포순사주재소 폐지 이후 헌병파견소 신설된 곳이며 1950년 1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사용하다가 1952년 3월 세브란스병원이 서울로 떠난 뒤 거제분원에서 사용함

〈특 징〉

- 이곳은 1914년 2월 장승포헌병파견소로 사용되었다가 1950년 12월 이후 서울 소재 세브란스병원이 피난 와서 장승포초등학교 교사와 구 장승포헌병파견소 건물을 징발해 사용했다. 그러다가 1952년 3월 세브란스병원이 서울로 되돌아가면서 별도로 거제분원(원장 김양선)이 인수해 사용하다가 현재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 부산일보, 1915-04-13



장승포헌병파견대 후면



장승포헌병파견대장 나카지마, 부산일보, 1915-04-13

3. 집회시설(03)

1) 장승포 공회당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가-03-01		
분 야		건축물	종 별	집회시설
명 칭		(原) 장승포 공회당	용 도	(原) 장승포 공회당
		(現) 주원산오리		(現) 주원산오리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283-22 / 283-9 분할 (現) 거제시 신부로1길 6-1		
건립연대		1928년 10월	설계/시 공자	
규 모	대지 면적	142㎡(43평)	연면적	㎡
	건축 면적	㎡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외관은 콘크리트로 건축되었고 내부는 약간 변형된 형태. 천정 내부는 대형목재가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음		
연혁 및 수리기록		· 1928년 坂倉浩 외 18명이 소유주였다가 장승포공회당으로 신축되었고 · 1946년 거제YMCA 사무실로 사용 · 1953년 거제극장으로 사용 · 1954년 3월 16일 283-9로 토지분할. · 1965년 3월 15일 국유지로 소유권이전하면서 거제군 소유 · 1965년 3월 25일 김양선에게 소유권 변동		
스토리텔 링 및 보존활용 제언		· 장승포 이리사 마을의 공회당에서 해방 이후 거제YMCA 사무실과 거제지역 의 최초 극장과 연결해 다양한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음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5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이 건물은 1928년 10월 장승포 이리사촌의 마을 공회당으로 신축되었다가 거제지역 최초의 극장이었던 곳이다. 〈특 징〉 · 이곳은 1928년 10월 기원절 기념사업에 선정되어 장승포 공회당을 신축된 것인데 주로 일본인들의 회의나 행사, 강연 등을 개최했다. 해방 이후 1946년 거제기독교청년회(YMCA) 사무실로 이용되었으나 1953년부터 거제극장으로 탈바꿈했다. 그 이후 건물은 거제군에 등기되었다가 럭키상사라는 양복점에서 지금의 주원산오리라는 상업시설이 사용하고 있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 부산일보, 1928. 10. 22



1946년 장승포 공회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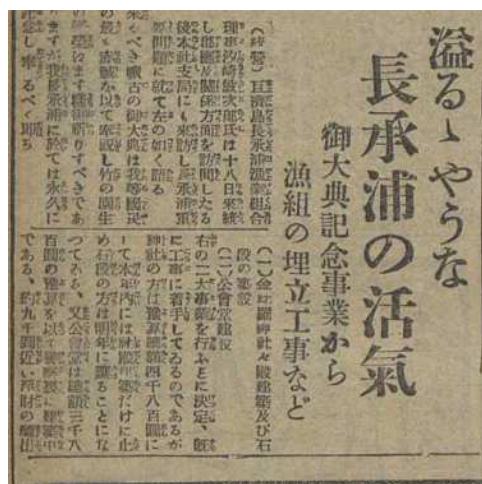
2020년 구 공회당



구 공회당 내부



구 공회당 천정 내부



“점점 장승포 활기 어대전기념사업으로” 장승포공회당 건설기사, 부산일보,

1928-10-22

4. 주거시설(04)

1) 지심도 전등소 소장 사택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가-04-01
------	------------

분 야	건축물		종 별	산업시설
명 칭	(原) 진해요새사령부 지심도 지구 전등소 소장 사택		용 도	(原) 전등소 소장 사택
	(現) 주거지			(現) 주거지
주소(GI 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31-85			
	(現)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31-85(34.81797° N 128.74855° E)			
건립연 대	1937년 7월 31		설계/시공 자	육군성 축성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155㎡		연면적	52.19㎡
	52.19㎡		층 수	지상 1층
구 조	목조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우진각 목조이며 지붕은 토기와로 단독주택이다.			
연혁 및 수리기 록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쫄쫄자키·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전등소는 1937년 7월 31일 준공되었다. 따라서 같은 시기 전등소 사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스토리 텔링 및 보존활 용제언			
관련자 료	- 구 토지대장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지정여 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쓰쓰자키·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1937년 7월 31일 전등소가 준공되었다. 따라서 같은 시기 전등소 사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특 징>

- 이 건축물은 전등소 소장 사택으로 지심도에서 건축물 중 제일 잘 보존된 것이다. 이 건물은 현재 민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큰 변형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 부산일보, 1930년 10월 12일 2면, 1934년 12월 18일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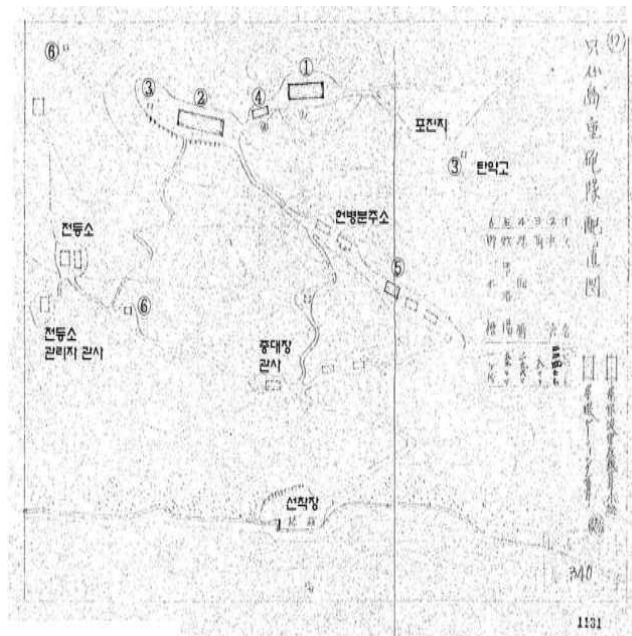
- 자료2



지심도 전등소 소장 사택



지심도 전등소



지심도 중포대 배치도 중 전등소와 전등소 관리소장 사택 표시, 1941년 8월

5. 상업시설(05)

1) 칠천도 일본인 상점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가-04-02
------	------------

분 야		건축물	종 별	주거시설
명 칭		(原) 칠천도 일본인 상점	용 도	(原) 칠천도 일본인 상점
		(現) 주거지		(現) 주거지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하청면 연구리 435-2		
		(現) 거제시 하청면 칠천로 362		
건립연대		연대불명	설계/시공 자	池本佑興吉
규 모	대지 면적	m ² (543평)	연면적	m ²
	건축 면적	m ²	층 수	지상 1층 / 지상 2층
구 조		목조 기와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일본인 상점은 전형적인 목조기와 건물이며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 현 주민이 거주하는 상점은 내부 구조가 변형없이 유지되고 있음. 다른 1동은 창고 건물인데 상점에서 사용하던 창고로 추정된다.		
연혁 및 수리기록		· 없음		
스토리텔 링 및 보존활용 제언		· 일본인 이주어촌 형성기부터 조선의 유명한 어장지, 원균의 칠천량해전과의 연계한 스토리 연계한 다크 헤리티지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9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칠천도 일본인 상점



2) 장승포 구로키 요리점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가-05-01
------	------------

분 야		건축물	종 별	상업시설
명 칭		(原) 장승포 구로키(黒木)요리점	용 도	(原) 요리점
		(現) 삼대함흥냉면		(現) 음식점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283-11/ 283-4 분할		
		(現) 거제시 신부로1길 2-1		
건립연대		1920년대	설계/시공 자	
규모	대지면적	178(평)㎡	연면적	122.3㎡
	건축면적	82.3㎡	층 수	지상 2층
구 조		목조 / 타다미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지상 2층 목조 기와건물이지만 내부는 각 방에 타다미로 구성됨		
연혁 및 수리기록		· 1926년 12월 24일 매축준공. 사카쿠라(坂倉浩) 외 18명 소유 · 1927년 10월 7일 등기 · 1928년 4월 28일 소유권 보존 · 현재 건물이 건축된 시기는 불명		
스토리텔 링 및 보존활용 제언		· 일본인 상점에서 흥남철수로 피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다크 헤리티지 지로 재구성할 필요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5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전경



제3절 산업구조물(나)

1. 방파제

1) 장승포 방파제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나-01-01
------	------------

분 야		건축물	종 별	산업시설
명 칭		(原) 장승포 방파제	용 도	(原) 장승포 방파제
		(現) 방파제		(現) 장승포 방파제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549-4		
		(現) 거제시 장승포동 549-4		
건설연대		1936년 8월 5일	설계/시공 자	통영군/통영군
규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구 조		석재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동방파제 90미터, 서방파제 190미터. 1946년 2차 보수		
연혁 및 수리기록		· 1933년 8월 28일 전체 공사비 6만원 중 3만원 보조금, 1934년 10월 총공사비 12만원의 경남도 예산과 2만원 주민 부담. · 1934년 11월 총공사비 22만원 중 국고보조비 12만원, 지방보조비 8만원, 지방민 부담금 2만원으로 1935년 3월 착수 · 1934년 10월 9일부터 1936년 3월 31일까지 공사 시작 허가. 1934년 2월 공사 시작 · 1936년 2월 29일 공유수면매립 면적 71평 방파제 동방파제 90미터와 서방파제 190미터로 확정 · 1936년 8월 5일 오전11시 장승포 방파제 기공식.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 제언	· 일본인 이주어촌에서 시작된 방파제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쳐 장승포의 상징적인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과 사람들의 일상과 연계할 스토리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부산일보 1933년 9월 5일 5면, 1934년 1월 17일 1면·5월 20일 3면·11월 15일 1면, 1935년 3월 29일 3면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5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1936년 8월 5일 기공식 장면(동방파제)



1946년 이후 서방파제



제4절 생활문화유산(다)

1. 납골당(01)

1) 장승포 납골당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다-01-01
------	------------

분 야		건축물	종 별	사회시설
명 칭		(原) 장승포 납골당	용 도	(原) 납골당
		(現) 밭		(現) 밭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승포리 382-5		
		(現) 거제시 장승포동 382-5		
건립연대		1905년 이후	설계/시 공자	
규 모	대지 면적	1131㎡	연면적	㎡
	건축 면적	㎡	층 수	
구 조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장승포 공동묘지 아래 일본인 납골당이며 언덕에 조성된 것으로 대규모 납골구역만 일부 남아 있음		
연혁 및 수리기록		· 1904년 이리사촌 개촌이후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 운영되었고 지금도 주요 석물과 묘비, 납골 단지 등이 산재해 있음		
스토리텔 링 및 보존활용 제언		· 지금도 일본인 납골단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조선인과 일본인의 장례 문화와 장승포에 거주한 일본인들의 일상을 연계한 스토리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지정여부	미지정(거제시 미래유산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5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장승포 남골당 전경



오타 본가의 묘비



장승포 남골당 일본인 유골



장승포 남골당 일본인 유골



1934년 11월 이후 오타 가족묘



일본인 묘비

長承浦の元老
太田種次郎氏訃
三十日午後二時告別式
【統管】統管部長承浦入佐村の元
老太田種次郎氏は去る十一月二十
二日釜山に於て数病開地の石腫病
院にて療養中であつたが何分高齢
のため百方手當も其効を奏せず二
十七日午後五時遂に永眠した
翁は崙國縣の出身にして早くより
海漁業の有望なるに着眼し
一族及び村民多數を従へて入佐
村に移住し時の管理者入佐村清
氏を援けて村民の福利増進に献
身的努力をなし一方町市着廻漁
業の機械船化に努め克く今日の
新築發達に貢獻し三十餘年の長
きに亘り此間學組管理者、漁業
組合長、面協議員、膠南水産會
議員等の要職にあげられ地方發
展のため盡瘁し殊に同港多年の
對してはその期成會長にあげら
れ老體を厭はず或は道に或は本
府に數回出馬し熱誠を以て要留
聲得に努め漸に其功奏し即ち本
年度から着工する運になつてゐ
る翁は資性剛直議論風發熱情の
人にして一言出した事は決して
後へは退かぬ性分であつた巨
頭香椎源太郎氏などもが遊あ
り實に長承浦の恩人であり翁の
逝は同地の爲に一大損失であ
る
享年七十三歳訃は十一月三十日
午後二時執行の出

1934년 11월 30일 사망한 오타 신문기사(부산일보, 1934-11-30).

제5절 역사유적(라)

1. 군사(01)

1) 구영 신호소(적벽돌)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01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구영 신호소	용 도	(原) 신호소
		(現) 주거지		(現)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구영리 300		
		(現) 거제시 장목면 구영2길 8		
건립연대		1904년 12월	설계/시공 자	육군성 축성부/
규 모	대지 면적	337㎡	연면적	㎡
	건축 면적	㎡	층 수	지상 1층
구 조		벽돌 기와	보존상태	양호/ 부분 파손
양 식		· 구조 : 단층 목조기와이며 빈집으로 오래 방치되어 부분적으로 파손된 상태이며 적벽돌의 굴뚝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연혁 및 수리기록		·		
스토리텔 링 및 보존활용 제언		· 저도, 송진포와 연계한 러일전쟁을 다룬 스토리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第150号 第1方面旧永登信号所各建物位置略図, 「極秘 明治37・8年海戦史 第8部 会計經理 卷6・7・8別冊」,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코드 번호 C051101813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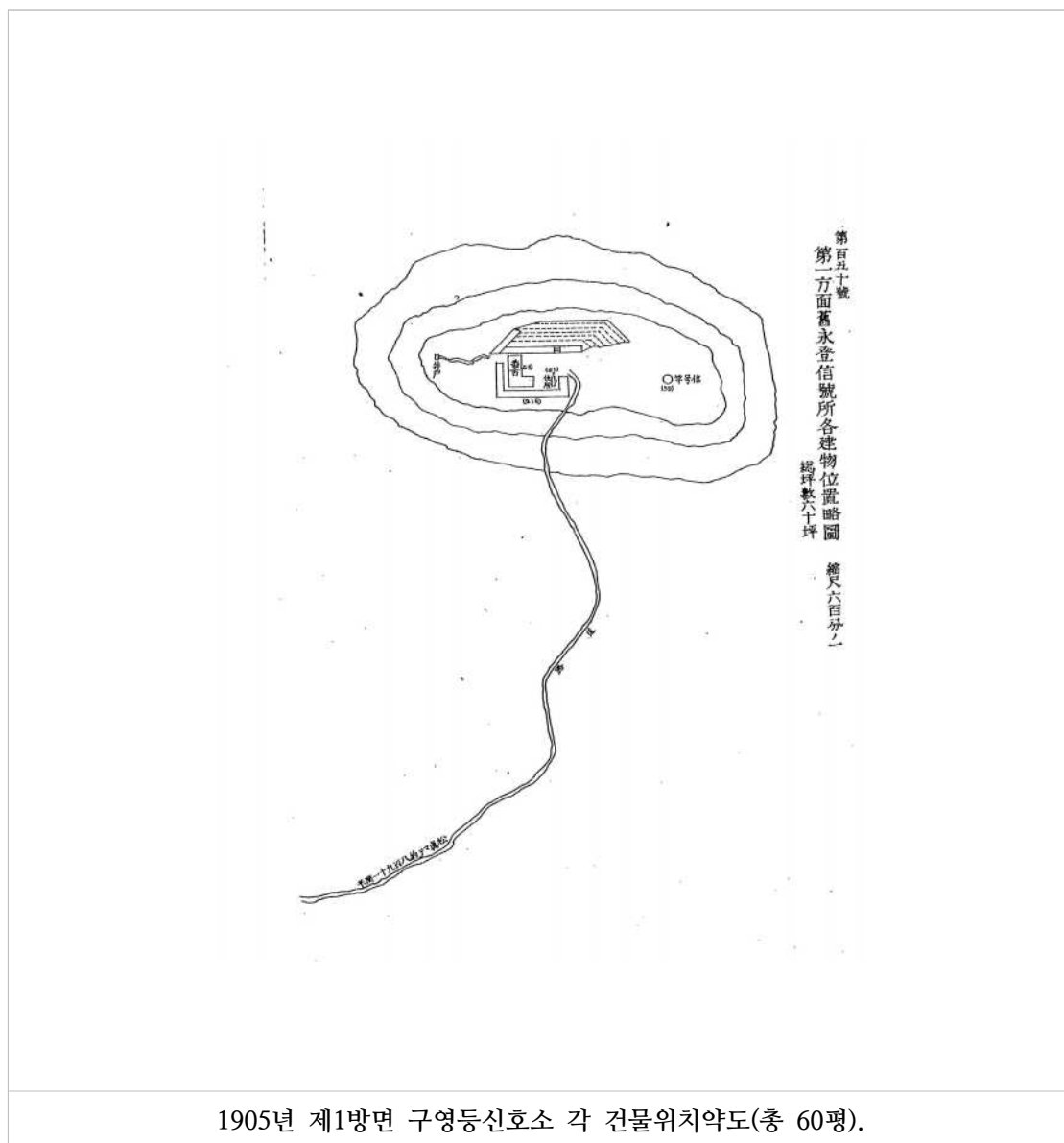
- 자료1



구영등 신호소 정면 1



구영등 신호소 정면 2



1905년 제1방면 구영등신호소 각 건물위치약도(총 60평).

2) 지심도 서치라이트 보관소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02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마산중포병 중대 지심도 서치라이트 보관소	용 도	(原) 서치라이트 보관소
		(現) 구 지심도 서치라이트 보관소		(現) 구 서치라이트 보관소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6-3		
		(現)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6-3(34.82479° N 128.75140° E)		
건립연대		1937년 7월 31일	설계/시 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 적	1018㎡	연면적	㎡
	건축면 적	㎡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상단 길이 520, 높이 316, 철문 외곽 290,		
연혁 및 수리기록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쓰쓰자키·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서치라이트 보관소의 구체적인 건설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1937년 1월 27일 지심도 중포대가 준공되자 7월 31일 모든 건물이 인수했다. 10월 11일 육군		

	축성본부는 육군성에 지심도 중포대 완료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 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只心島砲台備砲工事实施の件」, 1937. 6, 『密大日記』 제6책 昭和12年(1937).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쓰쓰자키·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1937년 7월 31일 주요 기지 시설물들이 완공될 때 서치라이트 보관소가 함께 신축되었다.

〈특 징〉

- 이 건축물은 쓰시마의 서치라이트 보관소와 동일한 날짜와 같은 기법으로 신축되었는데 두터운 철근콘크리트와 철문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 부산일보, 1930년 10월 12일 2면, 1934년 12월 18일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 (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 자료2



2011년 서치라이트 보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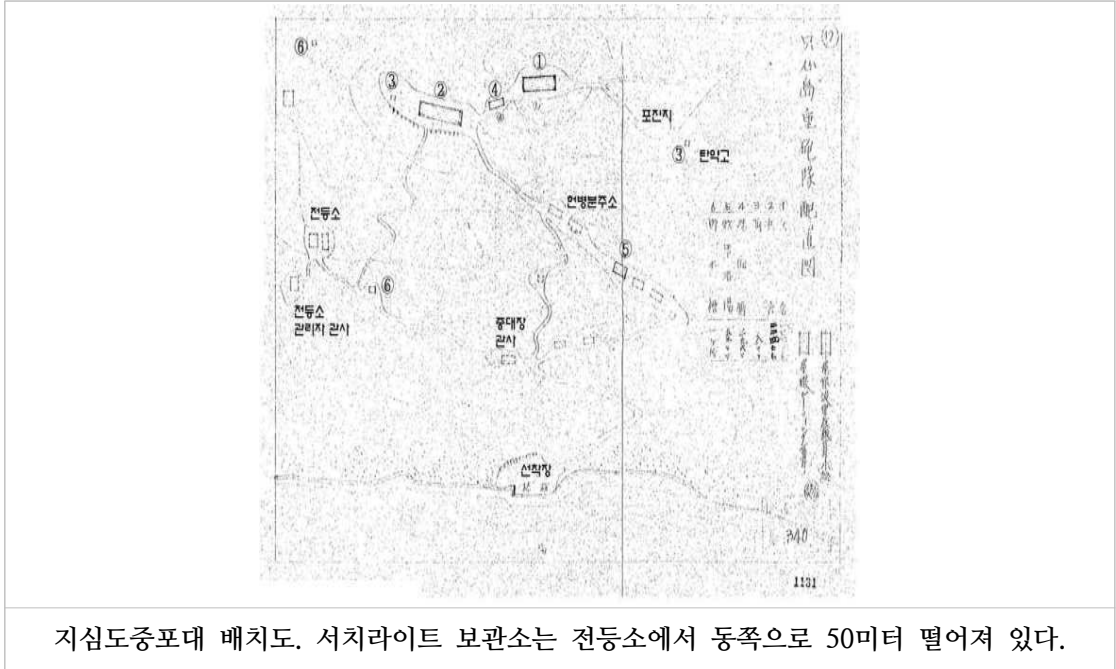
2020년 여름 지심도 서치라이트
보관소 1



쓰시마 쫄쫄자키 서치라이트 보관소 정면



지심도 서치라이트 보관소 정면



3) 장목면 저도 포대 1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03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저도지구 포대 1	용 도	(原) 포대
		(現) 구 저도 포대		(現) 포대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흥리 488		
		(現) 거제시 장목면 유흥리 488 (N 35° 01′ 14.6″ E 128° 44′ 29.9″)		
건립연대		1904년 8월 7일	설계/ 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 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 적	m ²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	보존상 태	양호/
양 식		· 구조 : 28cm 곡사포 배치한 포대이며 포 자리와 진지가 철근 콘크리트로 마감.		
연혁 및 수리기록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 · 1904년 8월 21일 제3임시축성단 본부 및 축성반, 공병 1소대와 저도의 방비공사 착수. 저도는 발 909두5승락, 답 30두8승락이 일본군 부지 · 1904년 10월 28cm 곡사포 배치. · 1904년 12월 22일 저도에 1개 중대의 중포대 설치 완료 · 1905년 3월 2일 저도 거주 주민의 가옥 중등가 19칸과 하등가 141칸(초가) 등 46명 거주. 강제 소개됨 · 1909년 9월 6일 저도 좌측 28cm 유탄포 2문 상용포대 사용 · 1923년 11월 26일 저도 포대 일제히 수리 및 수선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호리) - 陸軍省, -密大日記, 明治41年7月~明治41年8月, 第1号 海軍省 水雷衛所建設敷地に関する件, 1980(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9236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 포대 설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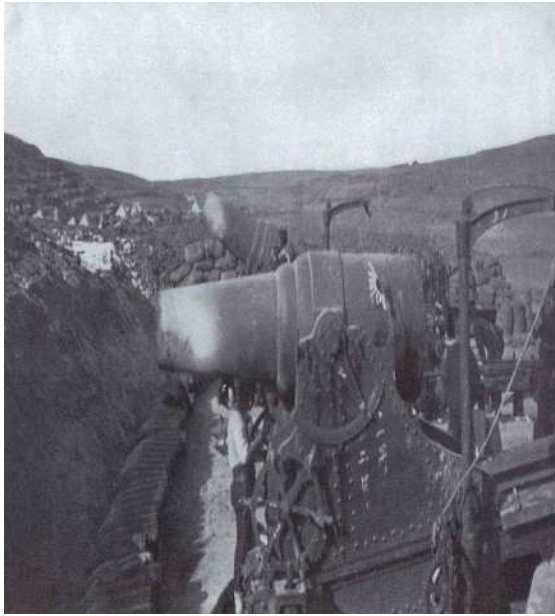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하고 8월 21일 제3임시축성단 본부 및 축성반이 공병 1소대와 저도의 방비공사에 착수했다. 저도는 밭 909두5승락, 답 30두8승락이 일본군 부지로 편입시키고 10월 28cm 곡사포 2문을 배치한 뒤 12월 22일 저도에 1개 중대의 중포대 설치를 완료했다. 1905년 3월 2일 저도 거주 주민의 가옥 중 등가 19칸과 하등가 141칸(초가) 등 46명 거주하는 곳인데 일본군에 의해 강제 소개되고 말았다. 1909년 9월 6일 저도 좌측 28cm 유탄포 2문 상용포대 사용하기 시작했다.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
- 1920년 5월 18일 진해만요새사령관 소다 코우이치로는 육군대신에게 저도 중포대의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포대 수선비 예산 9,256원인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족	적요
저도포대	1876엔	1872.660엔		
제3포좌(砲座) 수선	1509엔	1509.000엔		포좌콘크리트 두께 0.25미터의 타설로 교체하고 아래 자갈 두께 0.20미터를 깔고 전방의 하수구를 수선함.
포측고(砲側庫) 전면벽 수선	342엔	341.610엔	0.590	제2포측고 좌측 절반 및 그에 접한 탄실의 일부 콘크리트를 타설 교체함.
감수위사(위병소) 첩표체(疊表替)	25엔	22.050엔	2.950	다다미 겉에 교체는 7장 반, 안쪽 교체는 6장
(중략)				
저도 전등	45엔	(46.100엔)		
조명좌(照明座) 난간 설비	45엔	46.100엔	46.100	조명좌 부근에 兵員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 약 18미터에 난간을 설치함
(중략)				

- 1904년 10월 이후 저도 포대가 노후해 신규로 배치하는 과정이다. 포대의 손질 및 작은 수선비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족	적요
저도 포대	(220엔)	(258.490)		
상용인부(常傭人夫)	100엔	91.810	8.190	
임시직공 인부	60엔	77.650	17.650	
재료	60엔	89.030	29.030	
저도 전등	(5 9 3 엔)	(451.090)		
상용 인부	75엔	36.370	38.630	
상용 직공	170엔	117.380	52.620	
임시 직공 인부	70엔	50.700	19.300	
재료	21엔	14.300	6.700	
점화시험용 직공인부	73엔	78.740	5.740	
점화시험용 재료	130엔	154.600	24.600	
저도 보조건설물	(130엔)			
상용 인부	70엔	58.060	11.740	
임시직공, 인부	30엔	40.700	10.700	
재료	30엔	25.330	4.670	
저도포대 교통로	(58엔)	(93.040)		
상용 인부	40엔	49.560	9.560	
임시직공, 인부	10엔	39.040	29.040	심하게 부족한 것은 임시막사, 해군棧橋 간의 통로 보수에 의 함
재료	8엔	4.440	3.560	
저도전등교통로	(60엔)			
상용 인부	40엔	19.150	20.850	
임시직공인부	20엔	49.000	29.000	
저도 계선장(繫船場)	(10엔)	(48)		
임시직공인부	10엔	48	48	썩은 棧橋를 해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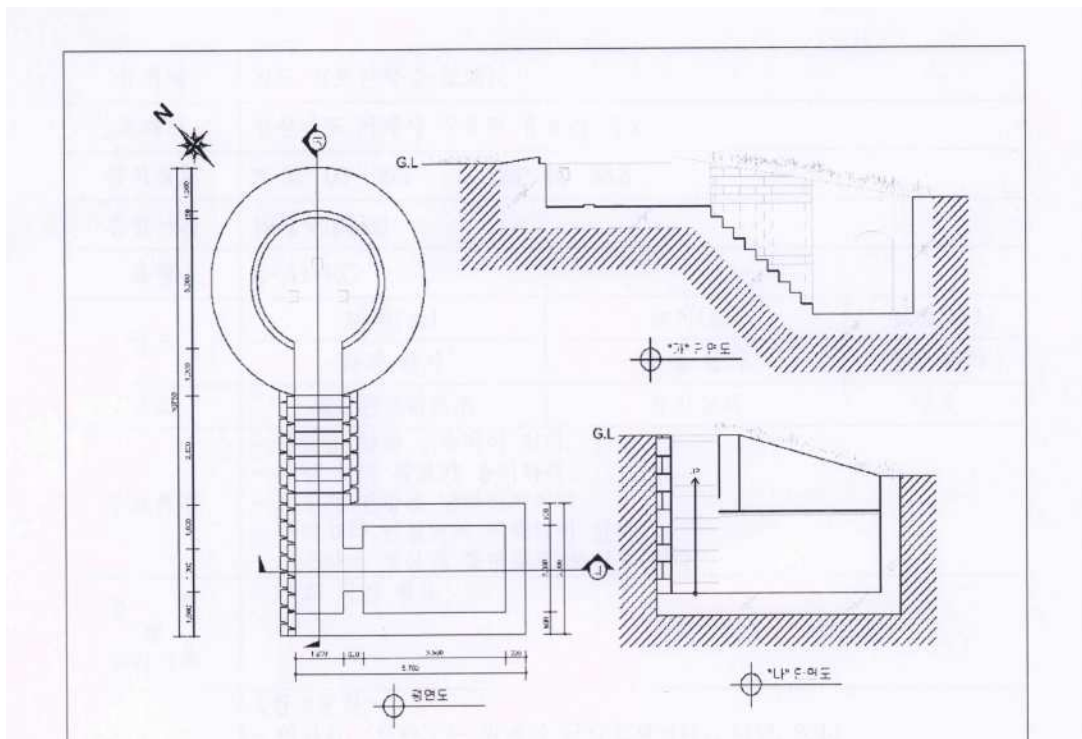
- 저도 포대의 포 자리 수선비는 1509엔이다. 특히 신규 건조물 비용은 4,300원인데 주로 임시막사 신축과 감시위병소 개축이었다. 임시 막사에는 선박, 화장실, 욕실 모두 15평 이고 판자 지붕으로 다다미를 넣었다. 감시위병소 개축은 종래 건물을 수리해 11평으로 늘리고 아연철판 지붕에 취사장과 욕실을 부속했다.
- 1923년 11월 26일 저도에는 전체 4개의 28cm 유탄포를 배치했는데 3과 4포차에 광상 목재를 교환했다.



1920년대 일본의 28cm 유탄포(전체 10,758kg, 길이 2,868mm, 구경 280mm)



러일전쟁 때 사용한 280mm 포탄



저도 포진지 평면도(문화재청,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보고서, 2016, 676쪽)



저도 포대



포대 좌측면



〈한국진해만 저도 수뢰위소 및 부속위치도 축척 1:10,000〉



〈한국진해만 저도 수뢰위소 및 부속위치도 축척 1:10,000〉 중 포대 위치도

4) 장목면 저도 포대 2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04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저도지구 포대 2	용 도	(原) 포대
	(現) 구 저도 포대		(現) 포대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흥리 488		
	(現) 거제시 장목면 유흥리 488 (N 35° 00′ 56.7″ E 128° 44′ 38.8″)		
건립연대	1904년 10월 28일 1923년 11월 26일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m ²	연면적	m ²
	m ²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28cm 곡사포 배치한 포대이며 포 자리와 진지가 철근 콘크리트로 마감.		
연혁 및 수리기록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 · 1904년 8월 21일 제3임시축성단 본부 및 축성반, 공병 1소대와 저도의 방비 공사 착수. 저도는 발 909두5승략, 답 30두8승략이 일본군 부지 · 1904년 10월 28cm 곡사포 배치. · 1904년 12월 22일 저도에 1개 중대의 중포대 설치 완료 · 1905년 3월 2일 저도 거주 주민의 가옥 중등가 19칸과 하등가 141칸(초가) 등 46명 거주. 강제 소개됨 · 1909년 9월 6일 저도 좌측 28cm 유탄포 2문 상용포대 사용 · 1923년 11월 26일 저도 포대 일제히 수리 및 수선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	.		

제언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흥리) - 陸軍省, -密大日記, 明治41年7月~明治41年8月, 第1号 海軍省 水雷衛 所建設敷地に関する件, 1980(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9236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2

□ 포대 설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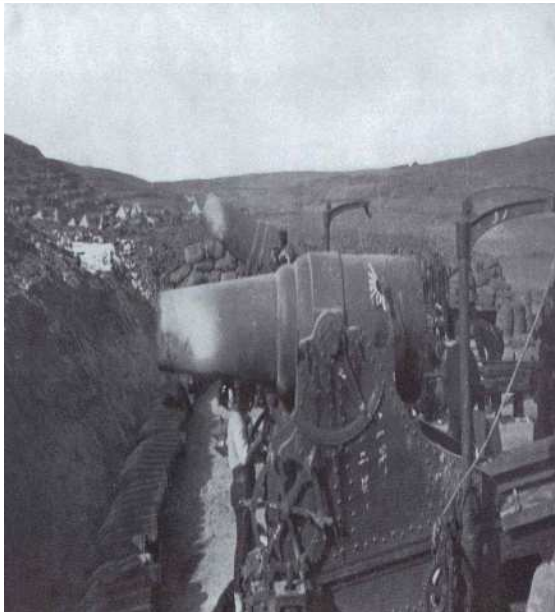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하고 8월 21일 제3임시축성단 본부 및 축성반이 공병 1소대와 저도의 방비공사에 착수했다. 저도는 받 909두5승락, 답 30두8승락이 일본군 부지로 편입시키고 10월 28cm 곡사포 2문을 배치한 뒤 12월 22일 저도에 1개 중대의 중포대 설치를 완료했다. 1905년 3월 2일 저도 거주 주민의 가옥 중 등가 19칸과 하등가 141칸(초가) 등 46명 거주하는 곳인데 일본군에 의해 강제 소개되고 말았다. 1909년 9월 6일 저도 좌측 28cm 유탄포 2문 상용포대 사용하기 시작했다.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
- 1920년 5월 18일 진해만요새사령관 소다 코우이치로는 육군대신에게 저도 중포대의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포대 수선비 예산 9,256원인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족	적요
저도포대	1876엔	1872.660엔		
제3포좌(砲座) 수선	1509엔	1509.000엔		포좌콘크리트 두께 0.25미터의 타설로 교체하고 아래 자갈 두께 0.20미터를 깔고 전방의 하수구를 수선함.
포측고(砲側庫) 전면벽 수선	342엔	341.610엔	0.590	제2포측고 좌측 절반 및 그에 접한 탄실의 일부 콘크리트를 타설 교체함.
감수위사(위병소) 첩표체(疊表替) (중략)	25엔	22.050엔	2.950	다다미 겉에 교체는 7장 반, 안쪽 교체는 6장
저도 전등	45엔	(46.100엔)		
조명좌(照明座) 난간 설비 (중략)	45엔	46.100엔	46.100	조명좌 부근에 兵員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 약 18미터에 난간을 설치함

- 1904년 10월 이후 저도 포대가 노후해 신규로 배치하는 과정이다. 포대의 손질 및 작은 수선비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족	적요
저도 포대	(220엔)	(258.490)		
상용인부(常傭人夫)	100엔	91.810	8.190	
임시직공 인부	60엔	77.650	17.650	
재료	60엔	89.030	29.030	
저도 전등	(5 9 3 엔)	(451.090)		
상용 인부	75엔	36.370	38.630	
상용 직공	170엔	117.380	52.620	
임시 직공 인부	70엔	50.700	19.300	
재료	21엔	14.300	6.700	
점화시험용 직공인부	73엔	78.740	5.740	
점화시험용 재료	130엔	154.600	24.600	
저도 보조건설물	(130엔)			
상용 인부	70엔	58.060	11.740	
임시직공, 인부	30엔	40.700	10.700	
재료	30엔	25.330	4.670	
저도포대 교통로	(58엔)	(93.040)		
상용 인부	40엔	49.560	9.560	
임시직공, 인부	10엔	39.040	29.040	심하게 부족한 것은 임시막사, 해군棧橋 간의 통로 보수에 의 함
재료	8엔	4.440	3.560	
저도전등교통로	(60엔)			
상용 인부	40엔	19.150	20.850	
임시직공인부	20엔	49.000	29.000	
저도 계선장(繫船場)	(10엔)	(48)		
임시직공인부	10엔	48	48	썩은 棧橋를 해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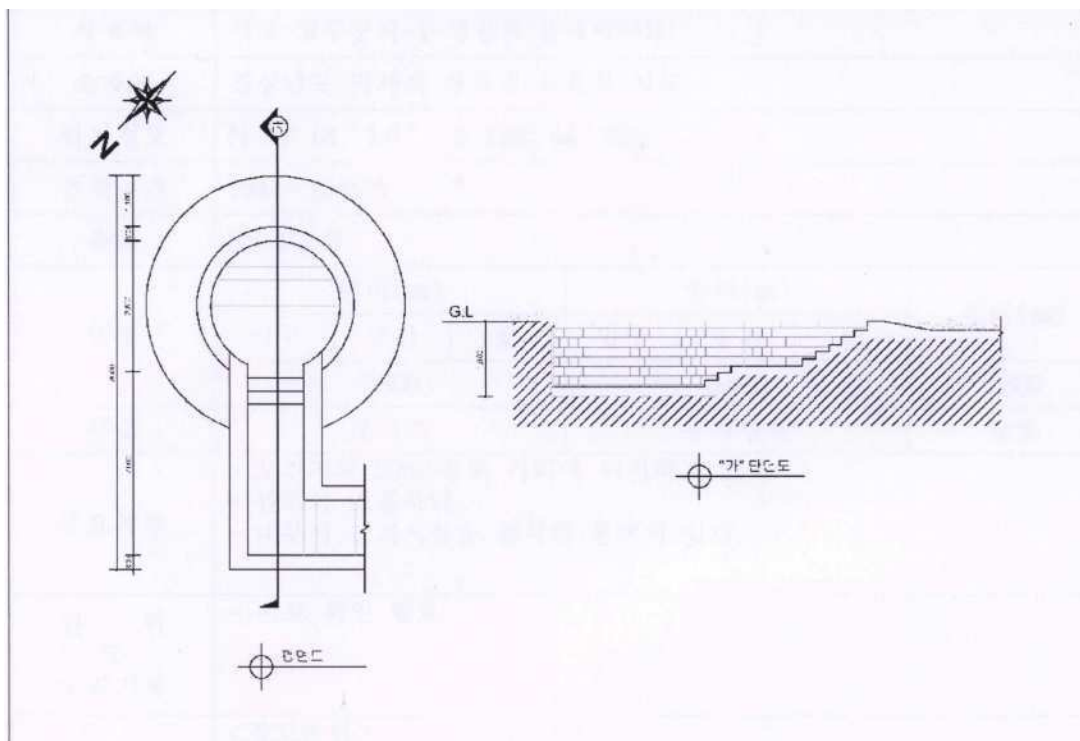
- 저도 포대의 포 자리 수선비는 1509엔이다. 특히 신규 건조물 비용은 4,300원인데 주로 임시막사 신축과 감시위병소 개축이었다. 임시 막사에는 선박, 화장실, 욕실 모두 15평 이고 판자 지붕으로 다다미를 넣었다. 감시위병소 개축은 종래 건물을 수리해 11평으로 늘리고 아연철판 지붕에 취사장과 욕실을 부속했다.
- 1923년 11월 26일 저도에는 전체 4개의 28cm 유탄포를 배치했는데 3과 4포차에 광상 목재를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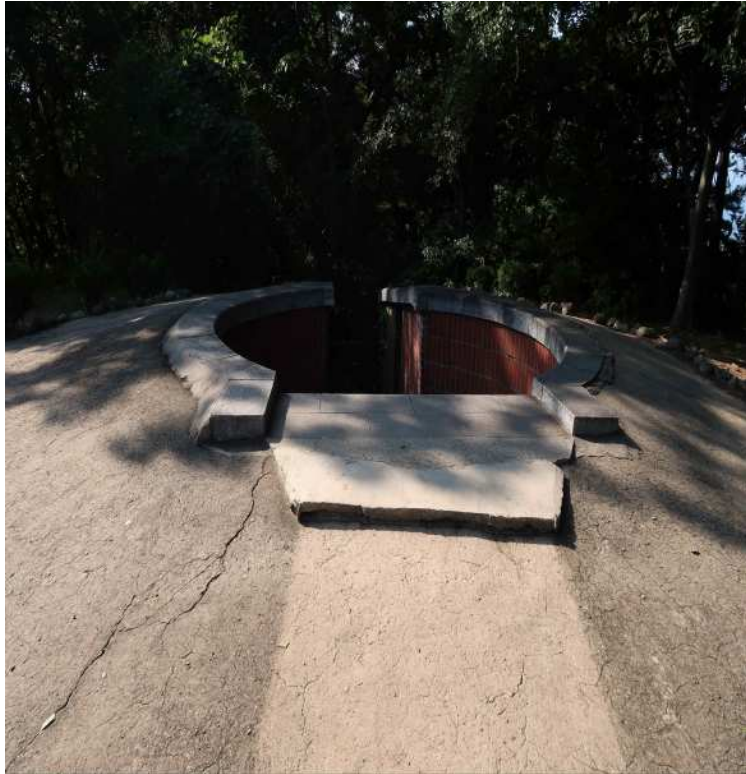
1920년대 일본의 28cm 유탄포(전체 10,758kg, 길이 2,868mm, 구경 28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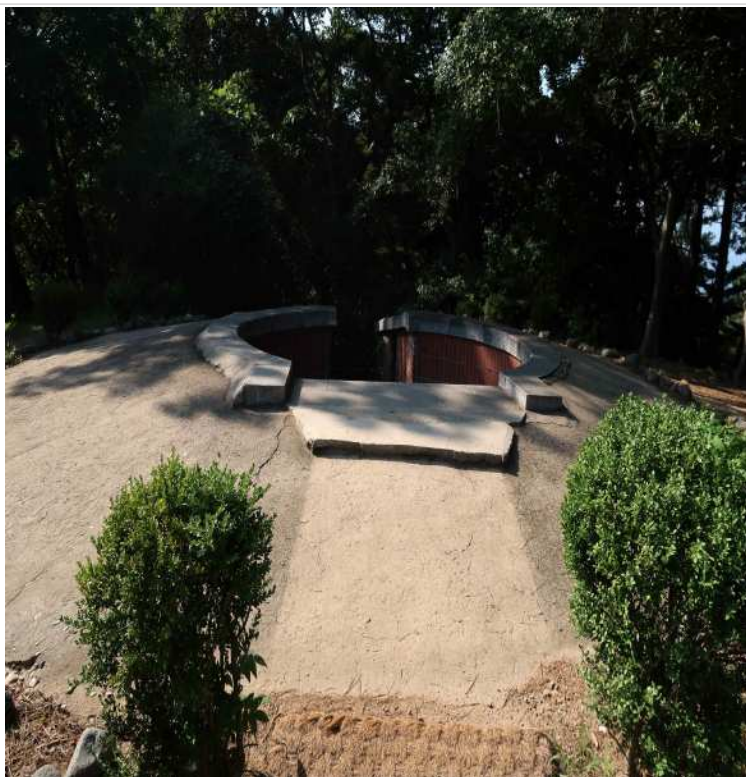
러일전쟁 때 사용한 280mm 포탄



저도 포진지 평면도(문화재청,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보고서, 2016, 678쪽)



저도 포대 2



포대 좌측면



〈한국진해만 저도 수뢰위소 및 부속위치도 축척 1:10,000〉



〈한국진해만 저도 수뢰위소 및 부속위치도 축척 1:10,000〉 중 포대 위치도

5) 장목면 저도 탄약고 1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05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저도지구 포대 탄약고	용 도	(原) 탄약고
		(現) 구 저도 포대 탄약고		(現) 탄약고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흥리 488		
		(現) 거제시 장목면 유흥리 488 (N 35° 01′ 14.6″ E 128° 44′ 29.9″)		
건립연대		1904년 12월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탄약고는 포대와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며 화강암으로 외벽처리하고 작은 규모의 탄약실이 갖춰져 있음		
연혁 및 수리기록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 · 1904년 8월 21일 제3임시축성단 본부 및 축성반, 공병 1소대와 저도의 방비공사 착수. 저도는 발 909두5승락, 답 30두8승락이 일본군 부지 · 1904년 10월 28cm 곡사포 배치. · 1904년 12월 22일 저도에 1개 중대의 중포대 설치 완료되면서 탄약고 설치 · 1905년 3월 2일 저도 거주 주민의 가옥 중등가 19칸과 하등가 141칸(초가) 등 46명 거주. 강제 소개됨 · 1909년 9월 6일 저도 좌측 28cm 유탄포 2문 상용포대 사용 · 1923년 11월 26일 저도 포대 일제히 수리 및 수선 때 탄약고 수선		
스토리텔링 및		·		

보존활용제 언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흥리) - 陸軍省, 密大日記, 明治41年7月~明治41年8月, 第1号 海軍省 水雷 衛所建設敷地に関する件, 1980(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9236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2

□ 포대 설치 과정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하고 8월 21일 제3임시축성단 본부 및 축성반이 공병 1소대와 저도의 방비공사에 착수했다. 저도는 밭 909두5승락, 답 30두8승락이 일본군 부지로 편입시키고 10월 28cm 곡사포 2문을 배치한 뒤 12월 22일 저도에 1개 중대의 중포대 설치를 완료했다. 1905년 3월 2일 저도 거주 주민의 가옥 중 등가 19칸과 하등가 141칸(초가) 등 46명 거주하는 곳인데 일본군에 의해 강제 소개되고 말았다. 1909년 9월 6일 저도 좌측 28cm 유탄포 2문 상용포대 사용하기 시작했다.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
- 1920년 5월 18일 진해만요새사령관 소다 코우이치로는 육군대신에게 저도 중포대의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포대 수선비 예산 9,256원인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 족	적요
저도포대	1876엔	1872.660엔		
제3포좌(砲座) 수선	1509엔	1509.000엔		포좌콘크리트 두께 0.25미터의 타설로 교체하고 아래 자갈 두께 0.20미터를 깔고 전방의 하수구를 수선함.
포측고(砲側庫) 전면벽 수선	342엔	341.610엔	0.590	제2포측고 좌측 절반 및 그에 접한 탄실의 일부 콘크리트를 타설 교체함.
감수위사(위병소) 첩표체(疊表替) (중략)	25엔	22.050엔	2.950	다다미 겉에 교체는 7장 반, 안쪽 교체는 6장
저도 전등	45엔	(46.100엔)		
조명좌(照明座) 난간 설비 (중략)	45엔	46.100엔	46.100	조명좌 부근에 兵員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 약 18미터에 난간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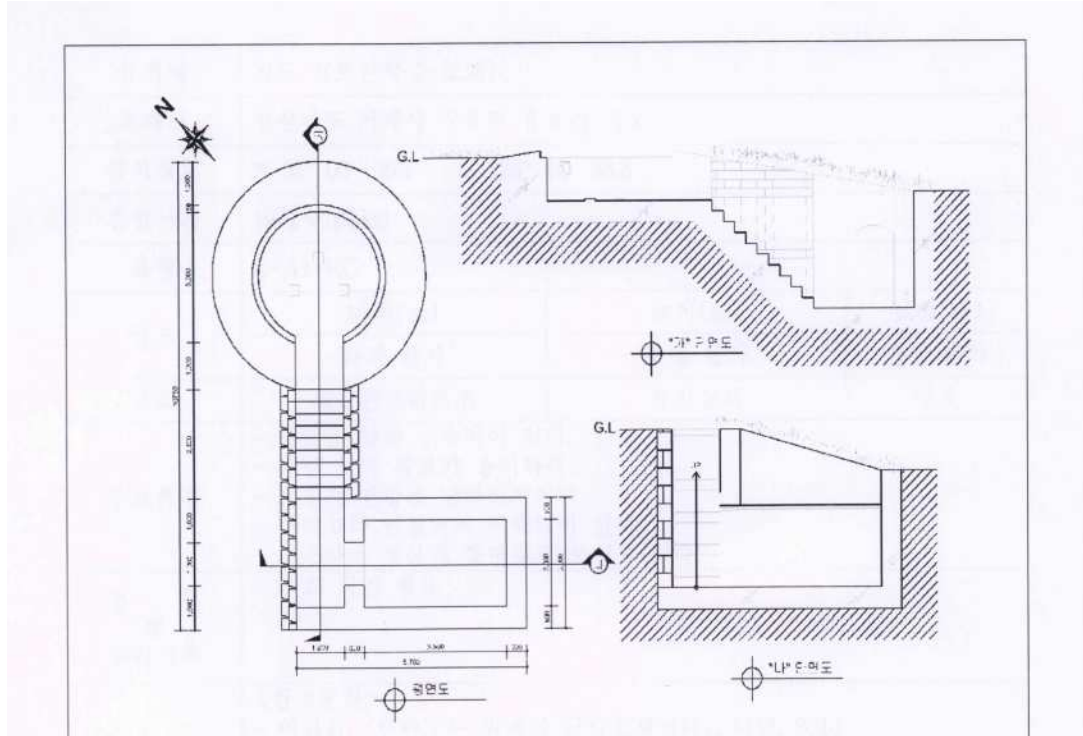
- 1904년 10월 이후 저도 포대가 노후해 신규로 배치하는 과정이다. 포대의 손질 및 작은

수선비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족	적요
저도 포대	(220엔)	(258.490)		
상용인부(常傭人夫)	100엔	91.810	8.190	
임시직공 인부	60엔	77.650	17.650	
재료	60엔	89.030	29.030	
저도 전등	(5 9 3 엔)	(451.090)		
상용 인부	75엔	36.370	38.630	
상용 직공	170엔	117.380	52.620	
임시 직공 인부	70엔	50.700	19.300	
재료	21엔	14.300	6.700	
점화시험용 직공인부	73엔	78.740	5.740	
점화시험용 재료	130엔	154.600	24.600	
저도 보조건설물	(130엔)			
상용 인부	70엔	58.060	11.740	
임시직공, 인부	30엔	40.700	10.700	
재료	30엔	25.330	4.670	
저도포대 교통로	(58엔)	(93.040)		
상용 인부	40엔	49.560	9.560	
임시직공, 인부	10엔	39.040	29.040	심하게 부족한 것은 임시막사, 해군棧橋 간의 통로 보수에 의 함
재료	8엔	4.440	3.560	
저도전등교통로	(60엔)			
상용 인부	40엔	19.150	20.850	
임시직공인부	20엔	49.000	29.000	
저도 계선장(繫船場)	(10엔)	(48)		
임시직공인부	10엔	48	48	썩은 棧橋를 해체함

- 저도 포대의 포 자리 수선비는 1509엔이다. 특히 신규 건조물 비용은 4,300원인데 주로 임시막사 신축과 감시위병소 개축이었다. 임시 막사에는 선박, 화장실, 욕실 모두 15평 이고 판자 지붕으로 다다미를 넣었다. 감시위병소 개축은 종래 건물을 수리해 11평으로 늘리고 아연철판 지붕에 취사장과 욕실을 부속했다.
- 1923년 11월 26일 저도에는 전체 4개의 28cm 유탄포를 배치했는데 3과 4포차에 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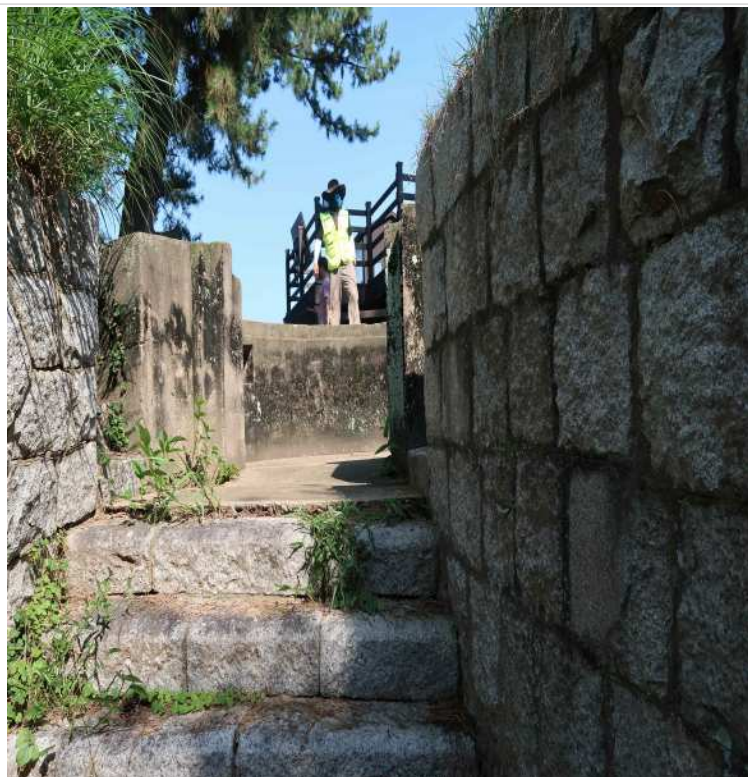
목재를 교환했다.



저도 포진지 평면도(문화재청,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보고서, 2016, 6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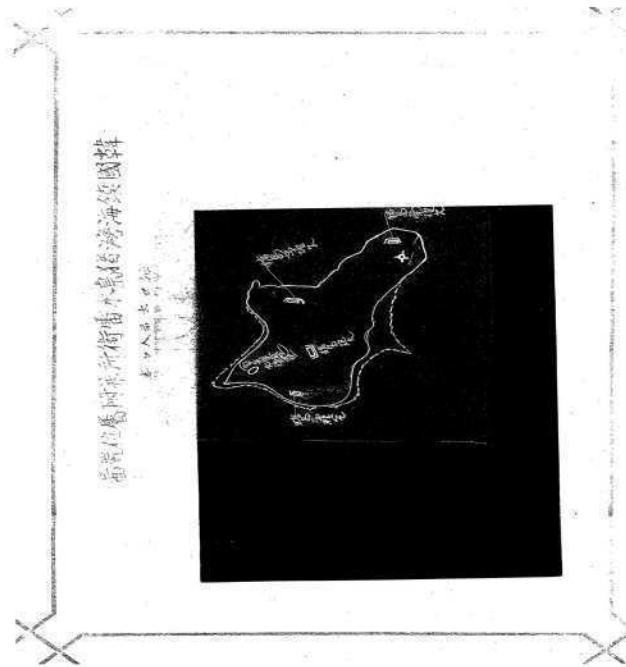
저도 포대의 탄약고



탄약고 외벽



〈한국진해만 저도 수뢰위소 및 부속위치도 축척 1:10,000〉



〈한국진해만 저도 수뢰위소 및 부속위치도 축척 1:10,000〉 중 포대 위치도

6) 장목면 저도 탄약고 2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06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저도지구 포대 탄약고	용 도	(原) 탄약고
		(現) 구 저도 포대 탄약고		(現) 탄약고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흥리 488		
		(現) 거제시 장목면 유흥리 488 (N 35° 00′ 56.7″ E 128° 44′ 38.8″)		
건립연대		1904년 12월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탄약고는 포대와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며 화강암으로 외벽처리하고 작은 규모의 탄약실이 갖춰져 있음		
연혁 및 수리기록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 · 1904년 8월 21일 제3임시축성단 본부 및 축성반, 공병 1소대와 저도의 방비공사 착수. 저도는 발 909두5승락, 답 30두8승락이 일본군 부지 · 1904년 10월 28cm 곡사포 배치. · 1904년 12월 22일 저도에 1개 중대의 중포대 설치 완료되면서 탄약고 설치 · 1905년 3월 2일 저도 거주 주민의 가옥 중등가 19칸과 하등가 141칸(초가) 등 46명 거주. 강제 소개됨 · 1909년 9월 6일 저도 좌측 28cm 유탄포 2문 상용포대 사용 · 1923년 11월 26일 저도 포대 일제히 수리 및 수선 때 탄약고 수선		
스토리텔링 및		·		

보존활용제 언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흥리) - 陸軍省, 密大日記, 明治41年7月~明治41年8月, 第1号 海軍省 水雷 衛所建設敷地に関する件, 1980(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9236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2

□ 포대 설치 과정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하고 8월 21일 제3임시축성단 본부 및 축성반이 공병 1소대와 저도의 방비공사에 착수했다. 저도는 밭 909두5승락, 답 30두8승락이 일본군 부지로 편입시키고 10월 28cm 곡사포 2문을 배치한 뒤 12월 22일 저도에 1개 중대의 중포대 설치를 완료했다. 1905년 3월 2일 저도 거주 주민의 가옥 중 등가 19칸과 하등가 141칸(초가) 등 46명 거주하는 곳인데 일본군에 의해 강제 소개되고 말았다. 1909년 9월 6일 저도 좌측 28cm 유탄포 2문 상용포대 사용하기 시작했다.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
- 1920년 5월 18일 진해만요새사령관 소다 코우이치로는 육군대신에게 저도 중포대의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포대 수선비 예산 9,256원인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 족	적요
저도포대	1876엔	1872.660엔		
제3포좌(砲座) 수선	1509엔	1509.000엔		포좌콘크리트 두께 0.25미터의 타설로 교체하고 아래 자갈 두께 0.20미터를 깔고 전방의 하수구를 수선함.
포측고(砲側庫) 전면벽 수선	342엔	341.610엔	0.590	제2포측고 좌측 절반 및 그에 접한 탄실의 일부 콘크리트를 타설 교체함.
감수위사(위병소) 첩표체(疊表替) (중략)	25엔	22.050엔	2.950	다다미 겉에 교체는 7장 반, 안쪽 교체는 6장
저도 전등	45엔	(46.100엔)		
조명좌(照明座) 난간 설비 (중략)	45엔	46.100엔	46.100	조명좌 부근에 兵員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 약 18미터에 난간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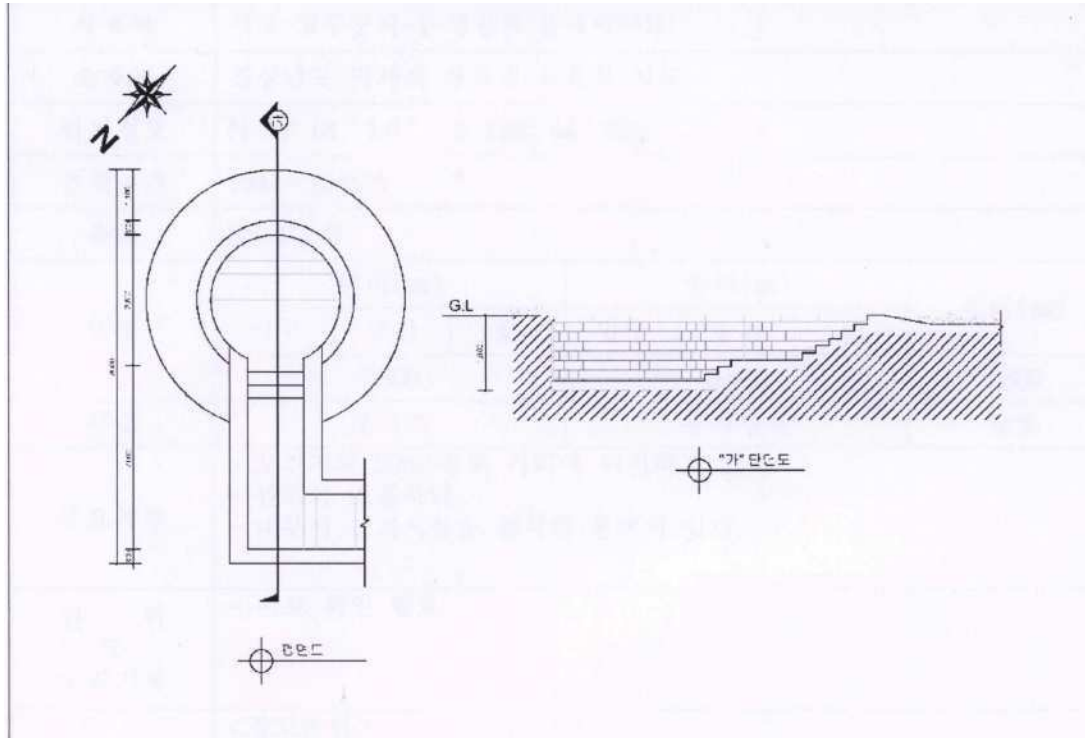
- 1904년 10월 이후 저도 포대가 노후해 신규로 배치하는 과정이다. 포대의 손질 및 작은

수선비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족	적요
저도 포대	(220엔)	(258.490)		
상용인부(常傭人夫)	100엔	91.810	8.190	
임시직공 인부	60엔	77.650	17.650	
재료	60엔	89.030	29.030	
저도 전등	(5 9 3 엔)	(451.090)		
상용 인부	75엔	36.370	38.630	
상용 직공	170엔	117.380	52.620	
임시 직공 인부	70엔	50.700	19.300	
재료	21엔	14.300	6.700	
점화시험용 직공인부	73엔	78.740	5.740	
점화시험용 재료	130엔	154.600	24.600	
저도 보조건설물	(130엔)			
상용 인부	70엔	58.060	11.740	
임시직공, 인부	30엔	40.700	10.700	
재료	30엔	25.330	4.670	
저도포대 교통로	(58엔)	(93.040)		
상용 인부	40엔	49.560	9.560	
임시직공, 인부	10엔	39.040	29.040	심하게 부족한 것은 임시막사, 해군棧橋 간의 통로 보수에 의 함
재료	8엔	4.440	3.560	
저도전등교통로	(60엔)			
상용 인부	40엔	19.150	20.850	
임시직공인부	20엔	49.000	29.000	
저도 계선장(繫船場)	(10엔)	(48)		
임시직공인부	10엔	48	48	썩은 棧橋를 해체함

- 저도 포대의 포 자리 수선비는 1509엔이다. 특히 신규 건조물 비용은 4,300원인데 주로 임시막사 신축과 감시위병소 개축이었다. 임시 막사에는 선박, 화장실, 욕실 모두 15평 이고 판자 지붕으로 다다미를 넣었다. 감시위병소 개축은 종래 건물을 수리해 11평으로 늘리고 아연철판 지붕에 취사장과 욕실을 부속했다.
- 1923년 11월 26일 저도에는 전체 4개의 28cm 유탄포를 배치했는데 3과 4포차에 광상

목재를 교환했다.



저도 포진지 평면도(문화재청,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보고서, 2016, 678쪽)



저도 포대의 탄약고 2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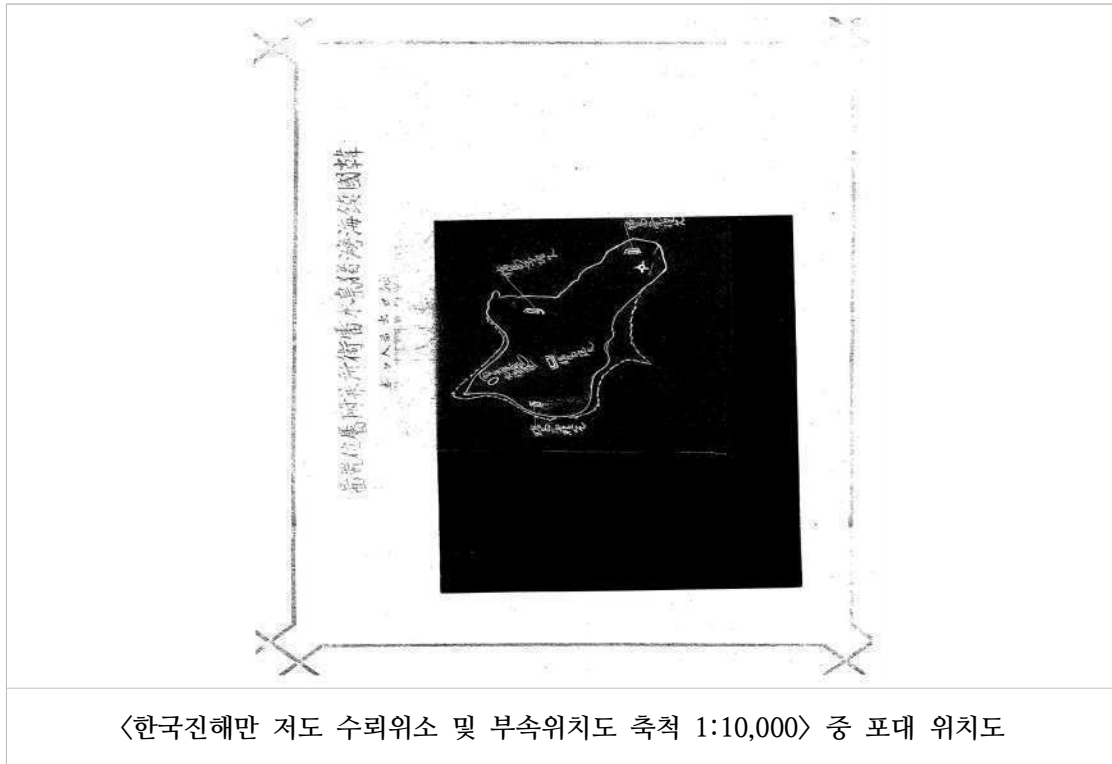
탄약고 외벽



탄약고와 포대로 연결된 계단. 난관은 해군에서 설치



탄약고와 연결된 포대 진지



〈한국진해만 저도 수뢰위소 및 부속위치도 축척 1:10,000〉 중 포대 위치도

7) 장목면 저도 중대본부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06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저도지구 포대 중대본부	용 도	(原) 중대본부
		(現) 구 저도 포대 중대본부		(現) 구 중대본부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호리 488		
		(現)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488 (N 35° 01′ 1.0″ E 128° 44′ 39.2″)		
건립연대		1920년 5월 18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1층
구 조		벽돌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너비 7,300mm, 높이 5,400mm, 길이 9,830mm이며 조적조 형태로 앞의 포대 2와의 30m 정도 떨어진 곳		
연혁 및 수리기록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 · 1904년 8월 21일 제3임시축성단 본부 및 축성반, 공병 1소대와 저도의 방비 공사 착수. 저도는 밭 909두5승락, 답 30두8승락이 일본군 부지 · 1904년 10월 28cm 곡사포 배치. · 1904년 12월 22일 저도에 1개 중대의 중포대 설치 완료되면서 탄약고 설치 · 1905년 3월 2일 저도 거주 주민의 가옥 중등가 19칸과 하등가 141칸(초가) 등 46명 거주. 강제 소개됨 · 1909년 9월 6일 저도 좌측 28cm 유탄포 2문 상용포대 사용 · 1923년 11월 26일 저도 포대 일제히 수리 및 수선 때 중대본부 신설		
스토리텔링 및		·		

보존활용 제언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호리) - 陸軍省, -密大日記, 明治41年7月~明治41年8月, 第1号 海軍省 水雷衛 所建設敷地に関する件, 1980(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9236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2

□ 포대 설치 과정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하고 8월 21일 제3임시축성단 본부 및 축성반이 공병 1소대와 저도의 방비공사에 착수했다. 저도는 밭 909두5승락, 답 30두8승락이 일본군 부지로 편입시키고 10월 28cm 곡사포 2문을 배치한 뒤 12월 22일 저도에 1개 중대의 중포대 설치를 완료했다. 1905년 3월 2일 저도 거주 주민의 가옥 중 등가 19칸과 하등가 141칸(초가) 등 46명 거주하는 곳인데 일본군에 의해 강제 소개되고 말았다. 1909년 9월 6일 저도 좌측 28cm 유탄포 2문 상용포대 사용하기 시작했다.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
- 1920년 5월 18일 진해만요새사령관 소다 코우이치로는 육군대신에게 저도 중포대의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포대 수선비 예산 9,256원인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 족	적요
저도포대	1876엔	1872.660엔		
제3포좌(砲座) 수선	1509엔	1509.000엔		포좌콘크리트 두께 0.25미터의 타설로 교체하고 아래 자갈 두께 0.20미터를 깔고 전방의 하수구를 수선함.
포측고(砲側庫) 전면벽 수선	342엔	341.610엔	0.590	제2포측고 좌측 절반 및 그에 접한 탄실의 일부 콘크리트를 타설 교체함.
감수위사(위병소) 첩표체(疊表替)	25엔	22.050엔	2.950	다다미 길에 교체는 7장 반, 안쪽 교체는 6장
(중략)				
저도 전등	45엔	(46.100엔)		
조명좌(照明座) 난간 설비	45엔	46.100엔	46.100	조명좌 부근에 兵員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 약 18미터에 난간을 설치함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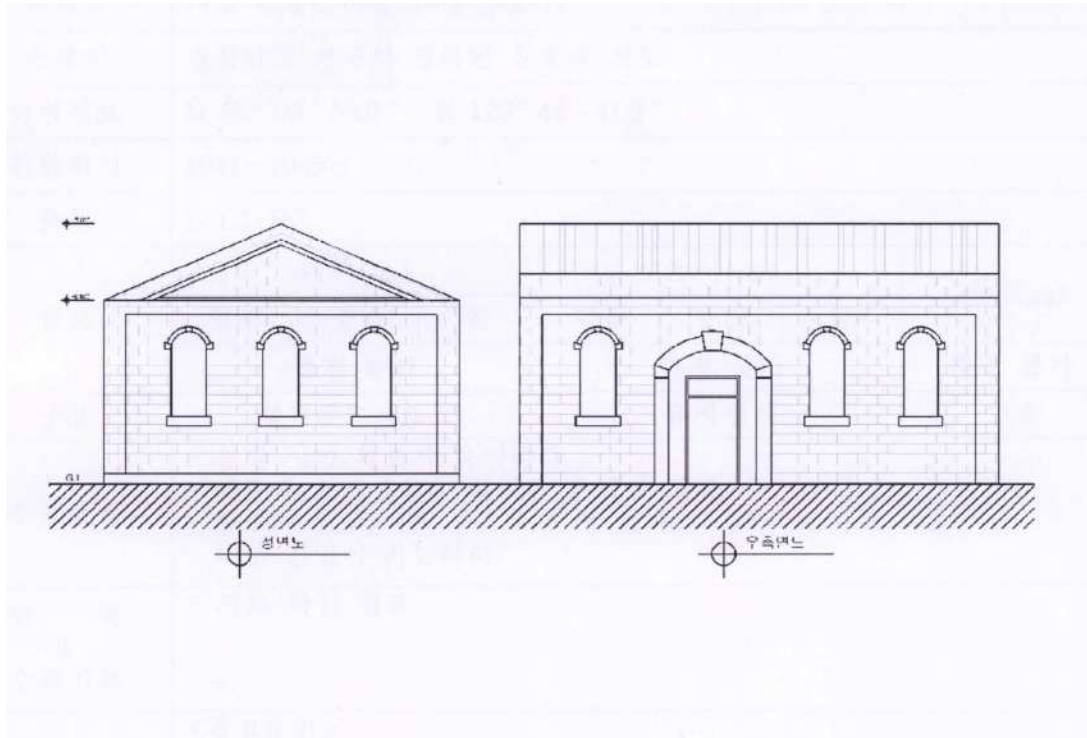
- 1904년 10월 이후 저도 포대가 노후해 신규로 배치하는 과정이다. 포대의 손질 및 작은

수선비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족	적요
저도 포대	(220엔)	(258.490)		
상용인부(常傭人夫)	100엔	91.810	8.190	
임시직공 인부	60엔	77.650	17.650	
재료	60엔	89.030	29.030	
저도 전등	(5 9 3 엔)	(451.090)		
상용 인부	75엔	36.370	38.630	
상용 직공	170엔	117.380	52.620	
임시 직공 인부	70엔	50.700	19.300	
재료	21엔	14.300	6.700	
점화시험용 직공인부	73엔	78.740	5.740	
점화시험용 재료	130엔	154.600	24.600	
저도 보조건설물	(130엔)			
상용 인부	70엔	58.060	11.740	
임시직공, 인부	30엔	40.700	10.700	
재료	30엔	25.330	4.670	
저도포대 교통로	(58엔)	(93.040)		
상용 인부	40엔	49.560	9.560	
임시직공, 인부	10엔	39.040	29.040	심하게 부족한 것은 임시막사, 해군棧橋 간의 통로 보수에 의 함
재료	8엔	4.440	3.560	
저도전등교통로	(60엔)			
상용 인부	40엔	19.150	20.850	
임시직공인부	20엔	49.000	29.000	
저도 계선장(繫船場)	(10엔)	(48)		
임시직공인부	10엔	48	48	썩은 棧橋를 해체함

- 저도 포대의 포 자리 수선비는 1509엔이다. 특히 신규 건조물 비용은 4,300원인데 주로 임시막사 신축과 감시위병소 개축이었다. 임시 막사에는 선박, 화장실, 욕실 모두 15평 이고 판자 지붕으로 다다미를 넣었다. 감시위병소 개축은 종래 건물을 수리해 11평으로 늘리고 아연철판 지붕에 취사장과 욕실을 부속했다.
- 1923년 11월 26일 저도에는 전체 4개의 28cm 유탄포를 배치했는데 3과 4포차에 광상

목재를 교환했다.



저도 중대본부 평면도(문화재청, 태평양전쟁유적 일제조사 종합분석 연구보고서, 2016, 680쪽)



중대본부 전경



중대본부 정면 외벽



중대본부 후면



중대본부 내부

	
중대본부 정문 낯쇠	중대본부 옆 우물 전경
	
중대본부 사방공사 전경	중대본부 사방공사 정면



중대본부 옆 수로



중대본부 지붕



〈한국전쟁해만 저도 수뢰위소 및 부속위치도 축척 1:10,000〉 중 포대 위치도

8) 장목면 저도 통신대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07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저도지구 포대 통신대	용 도	(原) 통신대
		(現) 구 저도 포대 통신대		(現) 통신대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흥리 488		
		(現) 거제시 장목면 유흥리 488 (N 35° 01′ 1.0″ E 128° 44′ 39.2″)		
건립연대		1920년 5월 18일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1층 지하 1층
구 조		철근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전방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내부에 전기시설을 설치한 흔적이 있다. 통로가 있고,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내부 진입이 가능하며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연결된 계단이 있다.		
연혁 및 수리기록		·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흥리) - 陸軍省,-密大日記, 明治41年7月~明治41年8月, 第1号 海軍省 水雷衛所建設敷地に関する件, 1980(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30229236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2

□ 포대 설치 과정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하고 8월 21일 제3임시축성단 본부 및 축성반이 공병 1소대와 저도의 방비공사에 착수했다. 저도는 밭 909두5승락, 답 30두8승락이 일본군 부지로 편입시키고 10월 28cm 곡사포 2문을 배치한 뒤 12월 22일 저도에 1개 중대의 중포대 설치를 완료했다. 1905년 3월 2일 저도 거주 주민의 가옥 중 등가 19칸과 하등가 141칸(초가) 등 46명 거주하는 곳인데 일본군에 의해 강제 소개되고 말았다. 1909년 9월 6일 저도 좌측 28cm 유탄포 2문 상용포대 사용하기 시작했다.
- 1904년 4월 2일 송진포 등지에서 군사용 토지수용 시작
- 1920년 5월 18일 진해만요새사령관 소다 코우이치로는 육군대신에게 저도 중포대의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포대 수선비 예산 9,256원인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족	적요
저도포대	1876엔	1872.660엔		
제3포좌(砲座) 수선	1509엔	1509.000엔		포좌콘크리트 두께 0.25미터의 타설로 교체하고 아래 자갈 두께 0.20미터를 깔고 전방의 하수구를 수선함.
포측고(砲側庫) 전면벽 수선	342엔	341.610엔	0.590	제2포측고 좌측 절반 및 그에 접한 탄실의 일부 콘크리트를 타설 교체함.
감수위사(위병소) 첩표체(疊表替) (중략)	25엔	22.050엔	2.950	다다미 길에 교체는 7장 반, 안쪽 교체는 6장
저도 전등	45엔	(46.100엔)		
조명좌(照明座) 난간 설비 (중략)	45엔	46.100엔	46.100	조명좌 부근에 兵員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 약 18미터에 난간을 설치함

- 1904년 10월 이후 저도 포대가 노후해 신규로 배치하는 과정이다. 포대의 손질 및 작은 수선비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항	예정액	실비	차인, 과부족	적요
----	-----	----	---------	----

저도 포대	(220엔)	(258.490)		
상용인부(常傭人夫)	100엔	91.810	8.190	
임시직공 인부	60엔	77.650	17.650	
재료	60엔	89.030	29.030	
저도 전등	(5 9 3 엔)	(451.090)		
상용 인부	75엔	36.370	38.630	
상용 직공	170엔	117.380	52.620	
임시 직공 인부	70엔	50.700	19.300	
재료	21엔	14.300	6.700	
점화시험용 직공인부	73엔	78.740	5.740	
점화시험용 재료	130엔	154.600	24.600	
저도 보조건설물	(130엔)			
상용 인부	70엔	58.060	11.740	
임시직공, 인부	30엔	40.700	10.700	
재료	30엔	25.330	4.670	
저도포대 교통로	(58엔)	(93.040)		
상용 인부	40엔	49.560	9.560	
임시직공, 인부	10엔	39.040	29.040	심하게 부족한 것은 임시막사, 해군棧橋 간의 통로 보수에 의 함
재료	8엔	4.440	3.560	
저도전등교통로	(60엔)			
상용 인부	40엔	19.150	20.850	
임시직공인부	20엔	49.000	29.000	
저도 계선장(繫船場)	(10엔)	(48)		
임시직공인부	10엔	48	48	썩은 棧橋를 해체함

- 저도 포대의 포 자리 수선비는 1509엔이다. 특히 신규 건조물 비용은 4,300원인데 주로 임시막사 신축과 감시위병소 개축이었다. 임시 막사에는 선박, 화장실, 욕실 모두 15평 이고 판자 지붕으로 다다미를 넣었다. 감시위병소 개축은 종래 건물을 수리해 11평으로 늘리고 아연철판 지붕에 취사장과 욕실을 부속했다.
- 1923년 11월 26일 저도에는 전체 4개의 28cm 유탄포를 배치했는데 3과 4포차에 광상 목재를 교환했다.



통신대 지하 1층 입구



통신대 지상 돌출 시설



통신대 지상에서 지하 1층으로 가는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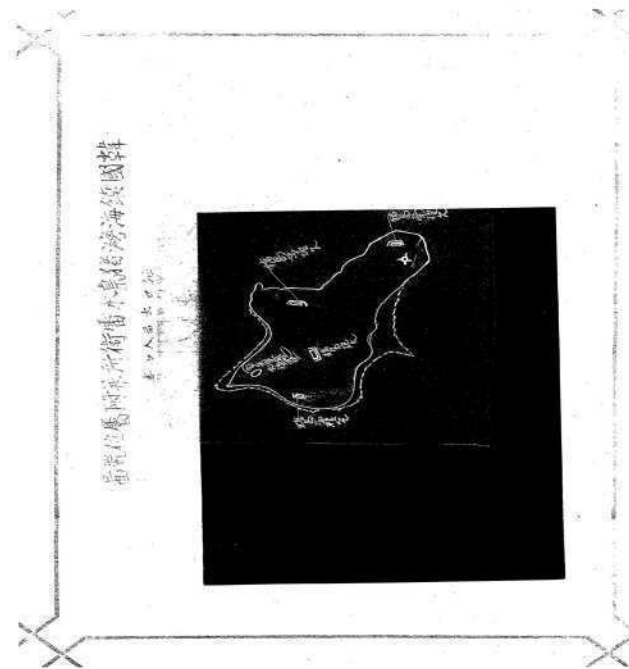
통신대 지하 1층 출입구



통신대 지하층 및 외벽



통신대 지하층 입구



〈한국진해만 지도 수뢰위소 및 부속위지도 축척 1:10,000〉 중 중포대 통신대 위치

9) 지심도 포대 1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08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지심도지구 포대		용 도	(原) 포대	
		(現) 구 지심도 포대			(現) 포대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441-1				
		(現) 거제시 지심도길 441-1				
건립연대		1937년 7월 31일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이 포대는 전체 4문 중 두 곳인데 15cm 캐논포이며 개조고정식 포대로 전부 동일한 규격이다. 규격을 보면 상부에서 하부의 높이 153cm, 넓이 770cm, 포 자리의 내부 반원 105cm, 내부 반원의 폭 230cm, 밖의 반원 400cm, 밖의 폭 35cm, 포 길이 홈 120cm, 홈길이 벽두께 21cm 등이다.				
연혁 및 수리기록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쓰쯔자키·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포대는 193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937년 7월 31일 완공해 진해요새사령				

	부에 인계되었다. · 2개 포의 위치는 N 34° 81736 E 128° 75076(지방방향 114°), N 34° 81693 E 128° 70041(지방방향 122°)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 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防禦營造物新築工事実施の件, 昭和11年「陸機密大日記 第1冊 2/2」, - 防禦營造物引継の件, 昭和13年「陸機密大日記 第3冊 2/2」, 1937년 10월 11일,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코드 번호 C010076943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쓰쓰자키·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1937년 7월 31일 주요 기지 시설물들이 완공될 때 포대가 설치되었다. 포대는 15cm 캐논포가 설치되어 있었다. 포는 1945년 10월 이후 미군이 점령해 철거해 바다에 버렸다.

〈특 징〉

- 이 포대는 쓰시마의 포대와 동일한 날짜와 같은 기법으로 신축되었는데 내부구조가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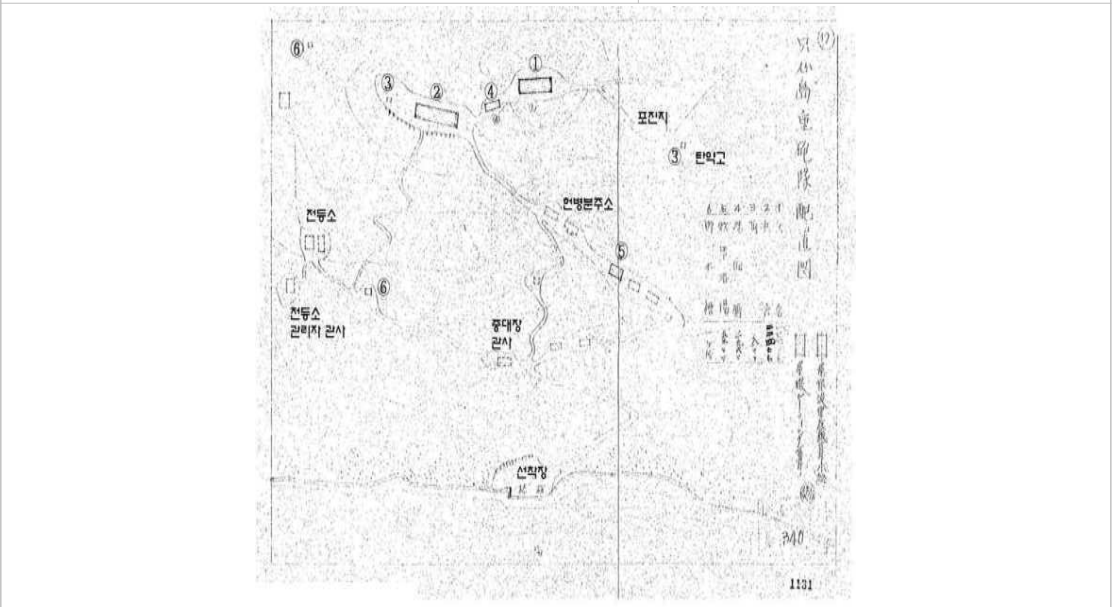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 자료2



지심도 포대 1



지심도중포대 배치도.

10) 지심도 포대 2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09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해요항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지심도지구 포대		용 도		(原) 포대	
		(現) 구 지심도 포대				(現) 포대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441-1					
		(現)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441-1					
건립연대		1937년 7월 31일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이 포대는 전체 4문 중 두 곳인데 15cm 캐논포이며 개조고정식 포대로 전부 동일한 규격이다. 규격을 보면 상부에서 하부의 높이 153cm, 넓이 770cm, 포 자리의 내부 반원 105cm, 내부 반원의 폭 230cm, 밖의 반원 400cm, 밖의 폭 35cm, 포 길이 홈 120cm, 홈길이 벽두께 21cm 등이다.					
연혁 및 수리기록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쓰쓰자키·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포대는 193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937년 7월 31일 완공해 진해요새사령					

	부에 인계되었다. · 2개 포의 위치는 N 34° 81736 E 128° 75076(지방방향 114°), N 34° 81693 E 128° 70041(지방방향 122°)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 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防禦營造物新築工事実施の件, 昭和11年 「陸機密大日記 第1冊 2/2」, - 防禦營造物引継の件, 昭和13年 「陸機密大日記 第3冊 2/2」, 1937년 10월 11일,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코드 번호 C010076943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쓰쓰자키·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1937년 7월 31일 주요 기지 시설물들이 완공될 때 포대가 설치되었다. 포대는 15cm 캐논포가 설치되어 있었다. 포는 1945년 10월 이후 미군이 점령해 철거해 바다에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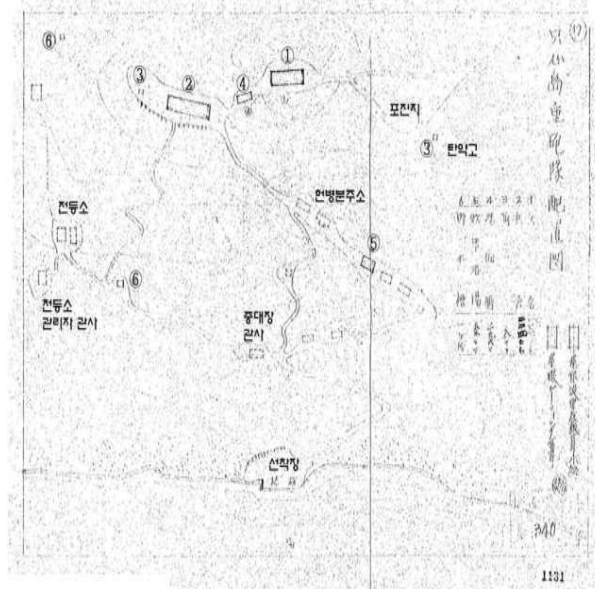
〈특 징〉

- 이 포대는 쓰시마의 포대와 동일한 날짜와 같은 기법으로 신축되었는데 내부구조가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 자료2



지심도중포대 배치도.

11) 지심도 탄약고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10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지심도지구 탄약고	용 도	(原) 포대
		(現) 구 지심도 탄약고		(現) 포대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現) 거제시 지심도길		
건립연대		1937년 7월 31일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이곳은 앞의 1번 포대에서 50m에 위치하고 캐논포 탄약을 보관하는 곳으로 정문 전체 높이 290cm, 철문 높이 235cm, 입구 턱높이 6cm, 턱과 붙은 벽 90cm이며 내부 2개의 공실은 넓이 450cm, 천정 높이 230com, 공실의 입구 120cm 정도이다.		
연혁 및 수리기록		·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防禦營造物新築工事實施の件, 昭和11年 「陸機密大日記 第1冊 2/2		

	」, - 防禦營造物引継の件, 昭和13年「陸機密大日記 第3冊 2/2」, 1937 년 10월 11일,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레코드 번호 C010076943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쓰쓰자카·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1937년 7월 31일 주요 기지 시설물들이 완공될 때 탄약고와 포대가 설치되었다. 탄약고는 15cm 캐논포의 탄약을 저장하는 곳이다. 탄약은 1945년 10월 미군에서 수거해 바다에 버려졌다.

<특 징>

- 이 탄약고는 쓰시마의 탄약고와 동일한 날짜와 같은 기법으로 신축되었는데 내부구조가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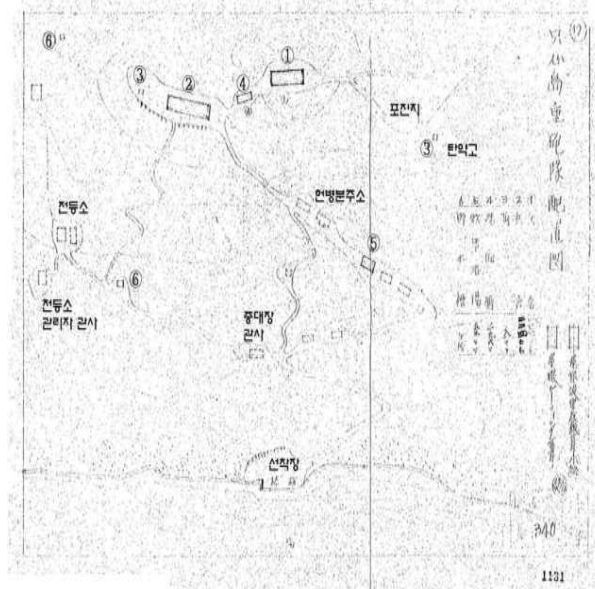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 (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입구

내부



지섬도중포대 배치도. 3번이 탄약고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11) 지심도 중포대 벙커 1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11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지심도 중포대 벙커 1	용 도	(原) 벙커
		(現) 구 지심도 중포대 벙커 1		(現) 벙커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44-1		
		(現)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44-1		
건립연대		1937년 7월 31일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 구조 : 전체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이라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곳이며 해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용한 곳이다.		
연혁 및 수리기록		·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쓰즈자키·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1937년 7월 31일 주요 기지 시설물들이 완공될 때 건축된 병커로 추정되고 있다.

〈특 징〉

- 이 병커는 포대중대 본부 아래 위치한 병커이며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있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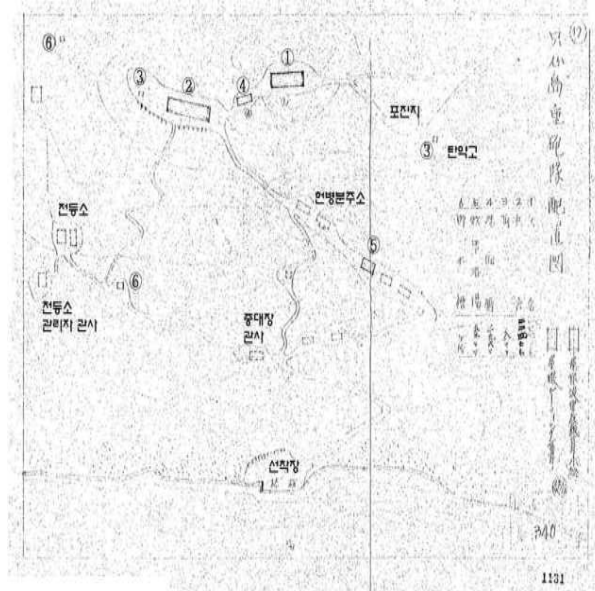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 (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입구

내부



지심도중포대 배치도.

12) 지심도 중포대 벙커 2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1-12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지심도 중포대 벙커 2	용 도	(原) 벙커
		(現) 구 지심도 벙커		(現) 벙커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44-1		
		(現) 거제시 옥림리 44-1		
건립연대		1937년 7월 31일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전체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곳이라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곳이며 해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용한 곳이다.		
연혁 및 수리기록		·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1937년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는 지심도 외에도 나가사키의 쓰시마 등 주요 섬에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지심도는 조선 세종 때 지사도(只士島), 1753년 3월 26일 지울도(只鬱島), 1807년 3월 1일 지세포와 경계인 지삼도(只森島)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졌다. 1908년 지심도에는 13가구 61명, 1912년 어업자 호구 1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었다. 1935년 12월 2일 일본군 참모본부는 지심도에 포대를 건설한다고 시모노세티요새의 시라시마, 나가사키 이키와 쓰시마 쓰쓰자키·사오라키 등지와 함께 계획했다. 1936년 2월 18일 요새건설실행위원회는 육군 축성본부에 지심도 포대 건설을 지시했다. 4월 23일 축성본부는 지심도 일대 국방용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결국 지심도에 거주하는 13가구는 거제 본섬으로 쫓겨나고 말았다.
- 1937년 7월 31일 주요 기지 시설물들이 완공될 때 건축된 병커로 추정되고 있다.

<특 징>

- 이 병커는 포대중대 본부 아래 위치한 병커이며 국방과학연구소 내에 있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경남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 只心島(麦ヶ島)防禦營造物新設に伴う憲兵分駐所設置の件, 陸軍省-密大日記-S11-5-11 (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十一年六月廿四日(1936. 6. 24,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1004211600).

- 자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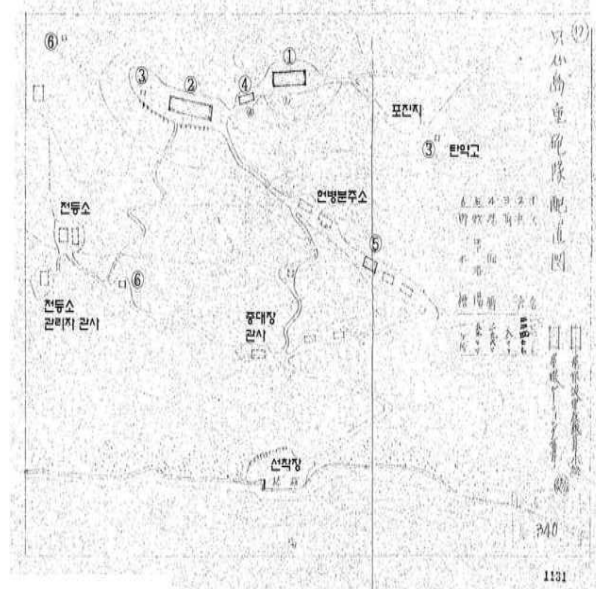
--	--



입구



외부



지심도중포대 배치도.

2. 기념비 및 조형물(02)

1) 지심도 진해요항사령부 군용지 표지석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2-01		
분 야		비석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지심도 진해요항사령부 군용지 표지석	용 도	(原) 표지석
		(現)		(現) 표지석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10-1		
		(現) 거제시 지심도길 31-86		
건립연대		1904년 12월	설계/시공사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1421㎡	연면적	㎡
	건축면적	㎡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화강암으로 ‘진해요항사령부 군용지(鎭海要港司令部 軍用地)’라고 새겨져 있으며 1936년에 설치된 것		
연혁 및 수리기록		· 1914년 3월 10일 김필로(金必魯) · 1935년 3월 26일 김성엽(金成燁), 1937년 3월 5일 분할로 소유권 이전 · 1937년 6월 2일 육군성으로 소유권 이전 · 1970년 12월 30일 고시변경으로 국방부로 이전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 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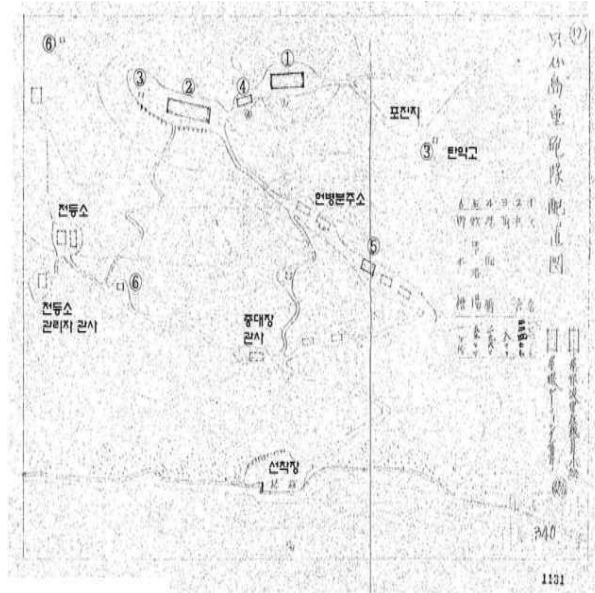
지정여부	미지정(거제시 미래유산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지심도여행 입구에 있는 표지석

표지석



지심도중포대 배치도.

2) 장목면 저도 진해요항사령부 군용지 표지석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2-02
------	------------

분 야		비석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저도 진해요항사령부 군용지 표지석	용 도	(原) 표지석
		(現) 구 군용지 표지석		(現) 표지석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유흥리 488		
		(現) 거제시 장목면 유흥리 488		
건립연대		1920년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1층
구 조		화강암/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화강암으로 2개의 표지석에서 앞면에 “육군관할지(陸軍管轄地)”와 뒷면에 “제114호”라고 적혀 있으며, 또 하나의 표지석은 “제57호”라고 새겨져 있다. 제57호의 앞면은 땅에 묻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연혁 및 수리기록		·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지정여부	미지정(거제시 미래유산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앞면 제114호 표지석(육군관할지)	앞면 표지석(육군관할지)
	
뒷면 제114호 라는 글씨	제57호라는 표시된 표지석

3) 진해요항사령부 송진포 가근거지방비대적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2-03
------	------------

분 야		비석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송진포 가근거 지방비대적	용 도	(原) 표지석
		(現) 구 가근거지방비대적		(現) 표지석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송진포리 770-1		
		(現)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770-1		
건립연대		1931년 6월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구 조		화강암 / 콘크리트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앞면에 ‘가근거지방비대적(假根據地防備隊跡)’이고 소화육년오월 (昭和六年五月, 1931년 6월)으로 새겨져 있다.		
연혁 및 수리기록		· 1931년 6월 장목면 송진포리에 기념비 설치 직후 방비대 터라는 표지석 설치 · 2020년 7월 20일 장목면 김형오 면장이 송진포리 770-1번지에서 수해로 인해 발견해 현재 거제시청에 소장하고 있다.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언		·		
관련자료				

지정여부	미지정(근대문화유산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앞면	앞면 밀착

4) 지심도 방향 지시석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2-04
------	------------

분 야	건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진해세항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저도지구 포대 방향지시석	용 도	(原) 방향지시석
	(現) 구 방향지시석		(現) 방향지시석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옥림리		
	(現)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34.82481° N 128.75301° E)		
건립연대	1936년 7월 31일	설계/시공자	육군성 축성부/
규모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시멘트 구조물, 長承浦(346° 방향), 加德島(19° 방향), 絶影島(54° 방향), 對馬北端(119° 방향), 對馬南端(167° 방향)을 표시함. 중앙에 서치라이트를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심추 기둥이 있고, 주위에 4개의 원형 구멍이 있다.		
연혁 및 수리기록	·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 제언	·		
관련자료	-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가덕도 지시석	장승포 방면 지시석
	
	절영도 동단방(絶影島東端方)

5) 송진포 가근거지 기념탑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2-05
------	------------

분 야		비석	종 별	시설
명 칭		(原) 송진포 방비대 가근거지 기념 탑	용 도	(原) 기념탑
		(現) 구 송진포 기념탑		(現)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송진포리 58-1		
		(現)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58-1		
건립연대		1931년 4월 23일	설계/시 공자	竹本組/
규모	대지면 적	㎡	연면적	㎡
	건축면 적	㎡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보존상 태	양호/
양 식		· 구조 : 기념비 높이는 총 25척(7,575m), 아래 기단의 1번은 23척(6,969m), 비의 주위에는 사방 26칸(47.27m)의 석란을 둘렀다. 정면 : 사이토 마사코 조선총독의 휘호(일본해해군연합한대대첩기념비)라는 비문 및 정면 상부와 양측면에 도고 헤이하치로 휘호 · 배면 : 고문, 회장 부회장과 100원 이상 회원, 설립자 및 청부인 등의 이름 기재 · 거제시에 보관된 우측면 도고 휘호 비는 높이 160cm, 폭 60cm, 두께 30cm이며 반으로 부서진 상태이다.		
연혁 및 수리기록		· 1931년 5월 27일 장목면 송진포리 58-1번지에 건립 · 1945년 8월 15일 이후 마을 주민들이 일부 기념비를 파괴 · 1947년 해군에서 다이너마이트로 기념비 전체를 파괴 · 1970년 1월 거제시 보관 중인 비석이 장목면 장목지서 옆에서 돌다리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고 거제시(당시 거제군청)에서 보관하는 중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부산일보, 1928. 10. 15·12.5, 1929. 1. 14·4. 6·5. 2, 1930. 10. 5·29, 1931.		

	1. 20·23·25·26, 4. 23, 1933. 1. 23, 1934. 5. 27, 1935. 6. 1 - 松眞浦に日本海々戦記念碑設立の件, 海軍省-公文備考-S3-110-3740(所蔵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昭和3年10月13日(1928. 10. 13,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4016426000).		
지정여부	미지정(근대문화유산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이곳은 1904년 러일전쟁 시기 도고 헤이하치로가 송진포에 방비대를 설치하고 러시아 발틱함대를 격침 시킨 내용을 담고 있는 기념탑이다. 1928년 10월 13일 진해요항부사령부는 송진포 유지들이 기념비 설립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해군성에 전문을 보냈다. 1928년 9월 30일 송진포 유지대표자 이와토모 마쓰모토 등이 “1904년 1월 제국해군 가근거지로서 방비대를 건설했다”며 “1904년 2월 상순부터 5월 27일까지 당시 연합대 사령장관 도고 대장은 휘하 함대의 주력을 해당 송진포 가근거지 부근에 집중하고 적 함대의 동정을 살피면서 예의 훈련에 노력하였고 도고가 때때로 방비대에 상륙하기도 했다”고 건설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1926년 8월 와다 경남지사가 진해요항부사령관에게 송진포 유지대표자들의 청원서를 전달했고, 1927년 진해요항부 나가사와 사령관이 송진포에 방문해 방비대의 기념지 보존 요청했다. 1928년 4월 진해 히라데 외 2-3명 유지자들이 다시 도고 기념비 건립을 요청했다. 기념탑은 1931년부터 송진포를 비롯한 거제와 통영 거주 일본인과 조선인 유지들로 구성된 건립위원회는 건립 기금을 모아 건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군은 도고와 조선총독 사이토 마사코의 친필을 받아 탑의 4면에 음각했다.

<특 징>

- 1931년 1월 22일 통영군수를 비롯해 거제와 통영지역의 유지들이 기념비 건립위원회 조직과 규약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나섰다. 2월 16일 건설회 상임위원회는 도고의 휘호를 중심으로 비문을 결정하고 4월 후원금 9,000원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5월 부산 다케모토 구미(竹本組)가 송진포에 비를 완성해 운반했다. 이어서 5월 27일 해군기념일에 비 제막식이 현지에서 열렸다.
- 일본해해전 도고(東郷)함대근거지 진해만 송진포기념비 비문을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 정면 상단 : “분려노력(奮勵努力: 마음과 기운을 다해 노력)” 횡서, (헤이하치로(平八郎) 씀)
- 정면 상단 아래 : 일본해해전연합함대근거지기념비(日本海海戰聯合艦隊根據地記念碑, 종서, 사이토 마사코 조선총독)
- 우측면 : “接敵艦見之警報 聯合艦隊欲直出動擊滅之 本日天氣晴朗波高(적함이 보인다

는 경보를 접하고 연합함대는 즉각 출동하여 이를 격멸하였다. 오늘 날씨는 청량하나 파도는 높다.”(헤이하지로(平八郎) 씀)

- 최측면 : “皇國興廢在此一戰名員一層奮勵努力(나라의 흥망이 이 일전에 달렸도다. 각자 더한층 분투노력하라.”(헤이하지로(平八郎) 씀)
- 뒷면 : 고문,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100원 이상 기부자 명단
- 이 비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장목면 치안대 회원들이 일부 파괴했으며 1946년 해군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전체 비를 파괴. 1970년 1월 장목면 장목지서 옆에 돌다리로 이용된 일부 비가 발견. 현재 거제시에 남아 있는 우측면의 도고 휘호가 담긴 일부 비. 기존 비가 세워진 장소에 하단 기단과 계단, 파괴된 상부 기단 등이 흩어져 있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장목면 송진포리)
- 海軍省-公文備考 物件3止 卷107, 松眞浦に日本海々戦記念碑設立の件(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4016426000)

- 자료2

	
정면 원경	정면 근경
	

측면	측면 근경
	
거제시에 보관된 기념비 중 우측에 설치되었던 비	

- 자료3

0742

奮勵努力

皇國興廢在此一戰
各員一層奮勵努力

平八郎書

接敵艦見之敬告聯合
艦隊欲直出動救急滅之
本日天氣晴朗波高

平八郎書

日本海軍東郷艦隊根據地
松真浦紀念碑文寫
昭和三年五月廿七日御揮毫



기념비의 평면도(1931. 4. 23 부산일보기사)와 제막 이후 기념비 모습(1934. 5. 27, 부산일보기사)



일본해군 간부들이 송진포에 시찰 기념 기사(조선시보, 1931. 11. 27)

6) 송진포 방비대 무기관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2-06
------	------------

분 야		조형물	종 별	군사시설
명 칭		(原) 송진포 방비대 무기관	용 도	(原) 송진포 방비대 무기관
		(現) 발		(現) 발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송진포리 605-11		
		(現)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05-11		
건립연대		1931년 8월	설계/시공 자	육군성 축성부/
규 모	대 지 면 적	m ²	연면적	m ²
	건 축 면 적	m ²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자갈	보존상태	부지 양호/무기관 파괴
양 식		· 구조 : 1931년 8월 건축된 상단부와 하단부가 철근콘크리트로 제작되어 현재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상단부는 어뢰나 프로펠러 등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철근이 상단부에 돌출되어 있다.		
연혁 및 수리기록		· 1945년 8월 15일 다음날 송진포 청년들이 무기관을 파괴했다고 한다.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 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海軍省, 公文備考 昭和六年 I 兵器 卷4, 第2706号 6·8·27 廃兵器無償下附の件 福岡県築上郡(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5021753100)		
지정여부	미지정(거제시 미래유산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이 무기관은 1904-05년 러일전쟁 기간 도고 헤이하치로가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발틱함대를 격침시킨 것과 송진포 일본해군 가근거지 방비대 터를 기념하고 폐기된 병기들을 설치한 것이다.

<특 징>

- 이 무기관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1931년 5월 7일 송진포일본해전연합함대 근거지 기념비 건설회장 사토는 해군대신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45밀리 어형수뢰 1개, 프로펠러 비행기용 1개 등을 무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무기는 “송진포 통칭 도고 부지에 기념 무기관을 건설하고자 일반 관람자에게 해군무기의 이해를 주기 위함이고 해군사상 교양자료로서 동 기념관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직접 전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적고 있다.
- 1931년 8월 27일 사세보 장관(佐鎮長官宛)이 해군성 대신에게 폐기된 무기를 무상으로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폐기 무기는 45밀리 어형수뢰(魚形水雷) 윗부분과 프로펠러 비행기용 각각 1대이다. 이것은 조선 경상남도 통영군 장목면 송진포 ‘일본해전연합함대 근거지 기념비’ 앞에 배치하고, 기념비 건설회장 사토 도쿠시게(佐藤徳重)에게 전달되었다.
- 1931년 8월 28일 해군성 부관은 경상남도 통영군 ‘송진포일본해전연합함대 근거지 기념비’ 건설회장 사토 앞으로 <폐기 무기 무상 하부의 건 통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5월 7일부로 신청한 사세보 해군 군수부 보관의 다음 물품을 인가하고자 사리를 따져 논의를 거쳐 진수부 사령관의 훈령을 받아서 알려드리며 현품은 전기 군수부에 조회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인부 및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해야 함.”이라고 적고 있다.
- 지금처럼 전쟁기념관이나 한국전쟁관련 기념 시설들이 국방부로부터 폐기된 병기들을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이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海軍省, 公文備考 昭和六年 I 兵器 卷4, 第2706号 6·8·27 廃兵器無償下附の件 福岡県築上郡(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5021753100)

- 자료2



정면 조형물 기단



뒷면



원경



근경

- 자료3



해군성이 송진포에 폐기된 병기를 보낸다는 공문이다.



송진포 방비대 터에 폐기된 병기를 무상으로 전달한다는 일본해군성 공문이다.

7) 취도 기념비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라-02-07
------	------------

분 야		비석		종 별	역사시설
명 칭		(原) 진해요항사령부 취도 기념비		용 도	(原) 기념비
		(現) 구 러일전쟁 기념비			(現) 구 기념비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사등면 창호리 산288			
		(現)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산288			
건립연대		1935년 8월 14일		설계/시공자	요항사령부 방비대/방비대원
규모	대지면적	1884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50평		층 수	
구 조		화강암 / 시멘트 마감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탑 하단에서 포탄까지 4.71미터, 대석 폭은 2.8미터이고 화강암 석이다. 경비는 220원73전, 석재, 비문, 조각, 가공, 목제, 시멘트 등 일체. 연인원 293명이 동원되어 공사			
연혁 및 수리기록		· 1907년 3월 11일 이토 히로부미 통감은 대한제국에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東葡萄鼻의 軍艦이 진해 군항의 경계인 취도에 대포사격 연습을 실시하고자 대한제국 정부에 군용지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 1918년 3월 31일 해군성에서 조선총독부로 소유권이 이관되었다. · 1935년 7월 기공해 8월 14일 준공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 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부산일보, 1935. 8. 22·25 - 自明治39年同至45年・鎮海永興關係書類·7(4), 海軍省-公文備考-T1-125-1474(所藏館: 防衛省防衛研究所), 明治40年3月11日(1907. 3. 1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8020174200).		
지정여부	미지정(근대문화유산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이 기념비는 1935년 8월 14일 건립된 러일전쟁 시기 포함사격 장소를 기념하고자 세워진 것이다.

〈특 징〉

- 이 기념탑은 1904년 4월 1일 진해만 함대 미카사(三笠)⁴⁹⁾ 등이 취도를 향해 함포사격했다고 알려져 있다. 진중일지에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一. 가장포함(假裝砲艦)으로 하여금 거제도 남방을 매 시간 도(島) 부근에서 절영도 부근까지 해면을 순찰경계 시킬 것을 小倉 특무함대 사령관에게 훈령함.(연대 제224호) (중략)

4월 10일(월) 진해만 기함 미카사

- 一. 미카사 부도(敷島) 만(灣) 내 취도에서 평시 등 함포 사격을 시행함. (중략)

- 취도기념 앞면 글자 : ‘취도기념’ 휘호는 고바야시(小林省三郎)진해요항사령부 사령관(중장).
- 뒷면 비문 내용 : ‘취도는 진해만 서쪽 한 모퉁이에 있는 섬이다. 일로 전쟁 때 아군(일본 해군)의 연합함대가 대기했다(吹島在鎮海灣西隅 日露戰爭之際 我聯合艦隊待機在此). 밤낮으로 실탄사격을 이 섬을 표적으로 했다. 그러니 섬의 원형을 유지할 수 없었다(日夜行實彈射擊 以此島爲標的 殆不留原形). 일본해에서 공을 세우고 이름을 떨친 것 역시 이 섬에서 힘입은 바가 많다. 이제 비를 세워 찬양하는 시를 지어 기리는 바이다(日本海之功名亦多所負于此島 今建碑成詩以頌之云爾). ‘취도에 일권을 가하니 옛 형태가 없어지고, 돌은 어지러이 부서지고 모래가 뒤집히고 포탄이 뒤덮였도다. 기쁜 마음으로 일어난 일을 이어서 서술하여 찬양하며, 천년토록 쇠퇴하지 않도록 황국을 보좌하리라(一拳吹島 舊形無 亂石崩沙鐵火敷 喜得宣揚連述事 千年不朽補皇國)’.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부산일보, 1935. 8. 22·25
- 自明治39年同至45年・鎮海永興關係書類·7(4), 海軍省-公文備考-T1-125-1474(所

蔵館：防衛省防衛研究所), 明治40年3月11日(1907. 3. 11,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8020174200).

- 자료2

	
취도 원경	취도 기념비 전경
	

49) 구 일본해군 전함 미카사는 러일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기함(旗艦)이다. 1899년 영국 비커스사에서 기공하여 1902년 완성하였으며 일본 해군에 인도된 후 연합함대의 기함이 되었다. 1905년 러일전쟁의 쓰시마해전에서 연합함대사령관이던 도고 헤이하치로가 탑승하여 일본 승리를 이끌었다. 러일전쟁 직후 탄약고 폭발로 침몰하였으나 1906년 인양하여 수리한 후 다시 제1함대 기함으로 복귀, 1차대전 당시 일본 본토 경비활동을 하였고 1923년 워싱턴군축조약에 의해 폐함되었다.

- 자료3



취도 위치도



부산일보 1935-08-22. 일본해해전기념에 취도에 비를 건립 도고함대에 유서깊은 작은



부산일보 1935-08-25. 고 도고원수의 연고지 취도에 해군기념비 23일 준공식 거행

제6절 인물유적(마)

1. 기념비(01)

1) 장승포 오타 가족(太田家) 조형물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마-01-01
------	------------

분 야		조형물	종 별	인물유적
명 칭		(原) 장승포 납골당 오타 가족 조형물	용 도	(原) 장승포 납골당 오타 가족 조형물
		(現) 받		(現) 받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382-5		
		(現) 거제시 장승포동 382-5		
건립연대		1935년 11월	설계/시 공사	
규 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1층
구 조		콘크리트 / 화강암석	보존상 태	비석 양호 / 납골묘역 일부 훼손
양 식		· 구조 : 납골묘역은 콘크리트와 화강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타 가족 조형물은 길이 89cm, 상단 폭 47cm, 중간 폭 52cm이다.		
연혁 및 수리기록		·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부산일보 신문기사(1934. 11. 4)		

지정여부	미지정(거제시 미래유산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5일	조사자	

- 자료1

〈배 경〉

- 이 납골당은 장승포 이리사무라 촌 개설 이후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34년 이후 장승포의 유력자 오타 집안에서 대형 납골묘역을 조성한 곳이다.

〈특 징〉

- 이곳에 오타 가족의 납골묘역과 조형물이 남아 있으며 일부 일본인 납골단지가 흩어져 매장되어 있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앞면



뒷면



뒷면 명문 '소화10년 7월'은 1935년 7월이다.



오타 가족 납골묘역

2) 장승포 납골당 오타 가족 조형물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마-01-02
------	------------

분 야		조형물	종 별	조형시설
명 칭		(原) 오타 가족 조형물	용 도	(原) 비석
		(現) 구 오타 가족 조형물		(現) 비석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이운면 장승포리 229-31		
		(現) 거제시 장승포동 229-31		
건립연대		1936년 1월	설계/시공자	오타 집안
규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구 조		화강암석	보존상태	양호/
양 식		· 구조 : 직 사각형 2개의 조형물 앞면 ‘헌(獻)’과 뒷면 ‘昭和十一年一月’ 표기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오타가(太田家)’라는 글귀가 있다.		
연혁 및 수리기록		· 1934년 11월 27일 오타 슈치로의 사망이후 1936년 1월 장승포 신사에 헌납된 조형물이다.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언		· 향후 거제시립박물관에 보관 필요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부산일보 기사(1934. 12. 4)		

지정여부	미지정(거제시 미래유산 지정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5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이 비석은 1936년 1월 장승포에 거주한 오타슈지로가 사망하고 장승포신사에 헌납한 것이다.

〈특 징〉

- 이 비석은 오타 집안에서 장승포신사에 봉납물로 헌납한 것이다. 오타는 1888년 어업조합과 연합조합 임원이고 원양어업에 뜻을 두고 조선의 바다를 시찰해 어선대를 인솔해 동해안 각지에서 지예망 또는 줄낚시 어업에 종사했으며 현과 국비 보조금을 받아 1900년 후쿠시마현 한해통어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장과 한해통어조합연합회 대의원, 1902년 어업법 실시 이후 이주어촌 건설과 조선수산조합 협력해 어사를 건설해 장승포 이리사 무라로 이주해 왔다. 수산조합출장소장, 학교조합관리자, 어업조합장 등을 거쳐 1923년 수산회설립 의원 및 평의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부산일보 신문기사(1934. 11. 4)

- 자료2



조형물 앞면 '헌(獻)'



조형물 뒷면 “昭和十一年一月”



오타 장례식 신문기사(부산일보, 1934. 12. 4)

2. 송덕비(02)

1) 구조라 일본인 송덕비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마-02-01
------	------------

분 야		조형물	종 별	기념물
명 칭		(原) 구조라 일본인 송덕비	용 도	(原) 송덕비
		(現) 구 일본인 송덕비		(現) 구 송덕비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일운면 구조라리 29		
		(現)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29		
건립연대		연대미상	설계/시공 자	구조라 이장
규 모	대지 면적	㎡	연면적	㎡
	건축 면적	㎡	층 수	
구 조		화강암석 /	보존상태	부분 잔존
양 식		· 구조 : 송덕비는 절반만 잔존하고 사각형인데 길이 18cm, 세로 16cm, 폭 61cm의 화강암이다.		
연혁 및 수리기록		· 건립된 시기가 불명이다. 부분적으로 남은 비석의 글을 보면 “三崎村, 主地方, 里長” 미사키무라(三崎村)는 에히메(愛媛)현 西宇和郡		
스토리텔 링 및 보존활용 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구조라 연혁(부산일보, 1926.		

지정여부	미지정(국가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6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자료1

〈배 경〉

- 1893년 구조라에 첫 어업이주자는 에히메 현의 니시우와(西宇和)군 미사키 출신자들이었다. 따라서 이 송덕비는 구조라에 첫 이주 온 미사키 출신 이주자를 기리고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특 징〉

이 송덕비의 나오는 구조라에 거주한 미사키 출신자들을 보면 御手洗道康, 의원 大川貞吉, 村上市松, 山田清治郎, 大林善一, 堀田竹平 喜代平房次郎, 加藤幸次郎, 山中辻松 등이다. 1926년 3월 26일 부산일보에 소개된 구조라의 일본인 어업이주자들은 대부분 미사키 출신이며 학교조합과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부산일보 1926. 3. 26

- 자료2



앞면에 '頌德碑'



뒷면에 '三崎村' 등 여러 명문을 볼 수 있으나 부분적이다.



1926년 3월 26일 부산일보에 게재된 구조라의 일본인 거류지 연혁. 이 기사에 에히메 현의 미사키 마을에서 구조라에 첫 이주해 왔다는 내용이 있다.

2) 옥포리 일본인 송덕비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정리번호	20-마-02-02
------	------------

분 야		조형물	종 별	기념물
명 칭		(原) 옥포리 일본인 추모비	용 도	(原) 추모비
		(現) 구 일본인 추모비		(現) 구 추모비
주소(GIS)		(原) 경상남도 통영군 이운면 옥포리 552-8		
		(現) 거제시 옥포동 552-8		
건립연대		1941년 11월	설계/ 시공자	옥포리 1구
규 모	대지면적	m ²	연면적	m ²
	건축면적	m ²	층 수	
구 조		화강암석 /	보존상 태	양호/
양 식		· 구조 : 전체 화강암으로 길이 55cm, 상부 둘레 28cm, 폭 30cm로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하지만 뒷면 비문 일부는 마모되었고 시멘트로 덧칠한 흔적이 있다.		
연혁 및 수리기록		·		
스토리텔링 및 보존활용제언		·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지정여부		미지정(거제시 미래유산 지정 필요)		

조사일	2020년 12월 18일	조사자	전갑생, 고영화
-----	---------------	-----	----------

- 자료1

〈배 경〉 · 이 비는 1941년 11월 옥포 1구 주민들이 일본인 시즈미 히사키(清水久木)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특 징〉 비는 앞면에 “清水久和追思碑”, 뒷면에 시즈미를 추념하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비문이 일부 훼손되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기타 문헌도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자료〉 - 구. 토지대장
--

- 자료2

	
앞면	뒷면

	
측면에 건립 시기(소화 16년 11월)와 건립한 옥포리 1구라고 적고 있다.	

제5장

거제근대 건조물 국가지정문화재등록 추진 타당성

제1절 개관

1. 선정기준

□ 국가지정문화재 선정 기준

- 사적·명승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의 시도지정문화재를 말함

□ 근대문화유산 선정 기준

- 문화재청에서 제시한 등록문화재를 말하며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

□ 거제시 미래유산 선정 기준

- 국가지정문화재나 근대문화유산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미래 세대의 교육적인 측면과 향후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라도 보존해야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며 거제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선정
- 조례제정 및 선정위원회 구성 필요
- 다른 시도 미래유산 사례 : 2013년 서울미래유산 제정. 서울의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가치가 있는 자산을 발굴하여 보존하는 프로젝트. 선정 대상은 서울을 대표하는 유산 중 국가·서울시 지정·등록문화재로 등재되지 않은 유·무형 자산을 대상. 미래유산 선정과정은 서울 미래유산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서울시·자치구·전문가 제안 접수 → 사실 검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 현황조사 →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심의 → 소유자 동의의 과정
- 그 외 다른 지역은 전주시 등에서 실시

제2절 전문가 의견 검토

1. 문화재 분야

□ 거제근대 건조물 등의 문화재 전문가 의견

- 김종헌(배제대학교 교수·문화재위원)의 전문가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를 제안함

- 전문가 의견 :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의 가치를 논하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대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이 일본군과 관계된 것들이라 현 상황에서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듯함. 현실적으로 거제도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라 지방 등록문화재로 유도를 많이 할 듯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1) 국가등록문화재로 검토 대상 2) 검토 후보 3) 거제 미래유산 검토 대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이 있음.
- 비석 등 일본인 추모비 같은 것은 우리나라 국가 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하기 어려움 있음

□ 국가 등록문화재 검토 대상

- ▶ 진해 요새사령부 마산중포병대 저도 지구 포병 중대본부 : 벽돌로 이루어진 초기 일본군 시설을 잘 파악할 수 있음
- ▶ 지심도 전등소 소장 사택 : 지심도 건축물 중 가장 잘 보존된 것
- ▶ 진해 요새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저도 지구 포대 1
- ▶ 지심도 중포대 병커 1
- ▶ 칠천도 일본인 상점 : 전형적인 비닐판벽의 일본식 목조건축, 원형 유지
- ▶ 장승포 공회당 : 거제지역 최초의 극장, 지붕이 바뀜

□ 국가 등록문화재 검토 대상 후보

- ▶ 지심도 헌병 파견소
- ▶ 장승포 헌병 파견소
- ▶ 지심도 중포대 병커 2

□ 거제시 미래유산

- ▶ 구영신호소
- ▶ 서치라이트 보관소
- ▶ 저도 포대 2
- ▶ 구 지심도 포대 및 탄약고
- **종합 의견** : 각 건물 단위로 국가 등록을 하기 보다는 거제지역의 일본군의 군사적 특성을 묶어서 면적 특성을 활용하는 “거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2. 역사분야

□ 역사학연구소 및 한국냉전학회의 여러 전문가들 의견

- ▶ 거제지역은 러일전쟁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군사화된 시설물들이 산재하고 있음. 따라서 군사화된 건조물과 일본인 거류지 가옥과 시설물들은 역사의 교육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종합의견 : 향후 국가 근대문화재 등록뿐만 아니라 보존되어야 할 유산임. 다만 일본인 송덕비 등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박물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봄

제3절 타당성 결과

1. 결론

□ 국가 등록문화재

- 진해 요새사령부 마산중포병대 저도 지구 포병 중대본부 : 벽돌로 이루어진 초기 일본군 시설을 잘 파악할 수 있음
- 지심도 전등소 소장 사택 : 지심도 건축물 중 가장 잘 보존된 것
- 진해 요새사령부 마산중포병중대 저도 지구 포대 1
- 지심도 중포대 벙커 1
- 칠천도 일본인 상점 : 전형적인 비닐판벽의 일본식 목조건축, 원형 유지
- 장승포 공회당 : 거제지역 최초의 극장, 지붕이 바뀜

□ 국가 등록문화재 후보

- 지심도 헌병 파견소
- 장승포 헌병 파견소
- 지심도 중포대 벙커 2

□ 거제시 미래유산

- 구영신호소
- 서치라이트 보관소
- 저도 포대 2
- 구 지심도 포대 및 탄약고
- 그 외 일본인 송덕비류 포함

□ 결론

- 앞의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국가 등록문화재는 <거제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봄.

- 러일전쟁과 일제강점기 군사화된 시설과 일본인 거류지 시설들을 별도로 구분해 추진한다면 찬반의 영향에 따라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복합적인 등록문화재 추진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2. 제언

□ ‘거제시 미래유산’ 조례 제정 및 선정 필요

- 지정 문화재 외에 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유산 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거제시의 별도 조례 제정. 이 조례에 민·관·학계 등이 협력하는 보존 거버넌스 구성 및 지속적인 등록문화재 신청
- 구성 인원 : 민·관·학계·문화재위원 등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
- 내용 : 미래유산 선정 및 심의, 보존대책 요구 및 관리지침 등 논의, 미래유산 신청 받기 행사 등

제6장

거제근대 건조물 디지털 아카이브 및 콘텐츠 예 시

제1절 근대건조물 목록화 방안 제시

1. 근대건조물 현황

□ 전체 현황

- 거제 근대건조물 및 기념물은 애초 40개소 중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철거된 곳을 제외해 총 34곳이다. 그 중에서 건조물은 23개소이며 기념비나 조형물은 11곳이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종교시설 2곳, 관청업무시설 2곳, 집회시설 1곳, 주거시설 1곳, 상업시설 2곳, 산업구조물 1곳, 생활문화유산 1곳, 역사유산 중 군사시설 12곳 등이다. 기념비 및 조형물 중에서 군사 관련 비석은 7개이다. 나머지 인물유적 중에서 기념비 1개, 송덕비 1개 등이다.

2. 목록화 방안 제시

□ 문화유산 <현황 조사표> 활용 방안

- <건축문화유산 현황 조사표>에 담긴 내용과 자료, 사진 등을 통합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며 지리정보를 탑재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

□ 문화유산의 메타데이터 입력 예시

- <현황 조사표>에 세부항목과 지리정보, 자료 사진(촬영일, 생산자 정보), 자료(생산일, 생산자, 기관 정보 등) 등을 입력

제2절 근대건조물 관련 소책자 제작 예시

1. 거제섬(巨濟島)의 역사와 거제민의 삶(별책)